

총학선거 22일부터 3일간

6개 단과대 · 졸업위 선거 동시 진행

투표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개표 24일 자정 중강당에서

총학생회 건설여부에 학내 구성원들이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제38대 총학생회 선거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학내 곳곳에서 치러진다. 같은 기간 동안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선거와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 선거도 함께 진행된다. 투표는 각 단과대 건물 지정 14개 투표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야간강좌 학생 중 주간으로 전환된 학생은 전환된 단과대에서 투표 가능) 개표는 오는 24일 자정 본관 중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투표 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학생증

이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는 총학생회를 비롯해서 △불교대 △이과대 △경영대 △공과대 △사범대 △예술대 단과대 학생회장 후보자가 출마했으며, 졸업준비위원회 선거도 경선으로 치러진다. 졸업준비위원회 선거 투표 자격은 각 학과 3학년 과대표들이 가지고 있으며 만해관에서 투표를 진행한다. 총학생회 등 후보가 미등록된 학생자치기구와 단과대들은 내년 3월 보궐선거를 통해 학생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제는 바꾸자! 새로운 동국으로 로그인!'을 모토로 총학생회 선

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정성진 · 우영진 조는 △한총련 탈퇴에 따른 가입비 지출 방지로 소규모 그룹 지원 확대 △총학생회 체계 전면적인 구조조정 △장학금 종류 증설 및 장학금 인상(강좌별 수석 장학금 신설) △100주년 기념관내의 기숙사 및 공학관 건설 △해의 프로젝트 대폭 확대 △동국100주년 기념 USB메모리 지급 △'학생안행사제' 신설로 학생의 권리 보호 △총장님 및 각 처부장과의 대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호 2번 유민지 · 구본훈 조는 '민족동국 주가폭등 1만 2천이 주가 되는 미래 사업 주식회사 Happy Consulting!'을 모토로 △학원자주 Consulting (교비 유용분 341억으로 2006학년도 등록금 동결, 계열별 등록금 책정) △개성공단, 금강산 기행 등 통일 유람단, 자랑스런 동국인 재조명 등 동국 100

주년 Consulting △우리가 직접 쓰여진 '백지 예산안'과 같이 참여와 자치로 바뀌는 학생회 Consulting △녹두 'festa'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동국 100주년 문화 Consulting △대형 극장 동국대 학생 합인 추진 및 중도 사물함 온라인 신청 등 학생들의 편의증진 복지 Consulting △학문 · 사상의 자유를 지키자 좋은 사회 Consulting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신두경 · 정통3)는 내일(15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문화관(K) 308호 강의실에서 '동국 100주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와 '교육환경 개선 정책(시설, 복지, 등록금 등)'에 관한 공동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며, 오는 16일 오후 1시 불상 앞에서 후보자 합동 유세가 열릴 예정이다. <해> iamjh713@dongguk.edu

단기특1



세계 대학의 교육환경과 특징

독일 교수와 학생 자율 보장 프랑스 창의력 · 논리 중심 교육

대학들은 세계화에 부응하고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해외 대학과 학술교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생들도 해외유학을 통해 학문과 기술 발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에 우리신문은 세계 대학들의 교육 환경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대학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앞으로 △독일 △프랑스 △미국 △중국 △일본의 대학 특징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로 이어진 대학은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대부분 독일 대학은 교문도 없다. 독일 학생들은 교수에게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다. 비록 우리나라의 '지도교수제'와 같이 학생을 개별 지도하는 교수는 없지만 개인별 학습계획이나 학위 취득과정에 따른 자세한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학업 상담을 하는 교수와 보조역할을 하는 조교가 있어 이들은 다양한 상담과 각 강좌에 따른 입문강좌를 제공한다. 입문강좌 담당교수들은 그 강의에 참여한 전체 학생에게 학업과 대학생활 전반에 걸친 지침과 상담을 한다. 필수강좌 담당교수들은 강좌내용 뿐만 아니라 수강하는 학생들의 학습지도를 돕는다. 조교들은 별도로 마련된 시교 자료검색 △학습계획에 대해 지도를 한다. 또한 주거나 생활 등 개인적인 문제를 상담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학교에 상주한다. 누구에게나 언제라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셈이다. <다음호에 계속>

기에 학칙을 융통성 있게 해석해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프랑스 = 역사, 철학, 지리, 프랑스어 등 대부분의 시험이 논술로 이루어진다. 단편적인 지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축적한 지식을 동원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논리를 전개했는지를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제도는 교사가 지식의 일방적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끔 이끄는 것은 물론이고 학습자의 창의력과 논리성을 키우게 된다. 또한 프랑스는 대학이 '이원화'돼 있다. 일반 대학과 그라제콜(Grandes Ecoles)로 나뉜다. 일반 대학은 기초 학문을 육성한다. 하지만 그라제콜은 별도의 입학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을 뽑아 고위공무원 등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한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있는 박윤아(신방3) 양은 "그라제콜 입학 시험은 주로 기특권 계층에 속해 있다"며 "예산과 특혜를 독식하고 있어 프랑스 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독일 = 독일 대학에서 눈에 띄는 점은 교수와 학생의 '자율'이다. 배움의 공간에서 구성원인 교수와 학생은 서로를 존중한다. 학교와 학과 사이의 행정 중심이 아닌 교수 혹은 연구소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교수, 연구소는 저마다 대학이 정해놓은 큰 틀 안에서 교육과정이 있다. 이와 관련해 독일 Freiburg대학에서 유학을 한 이상영(법학) 교수는 "교수, 연구소 중심으로 이뤄져 학생들은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행정 중심으로 구성된 대학과 캠퍼스와는 큰 차이가 있다. 독일 대학은 캠퍼스 개념이 없다. 건물이 시내 곳곳에 분산되어 있다. 새

▲프랑스 = 역사, 철학, 지리, 프랑스어 등 대부분의 시험이 논술로 이루어진다. 단편적인 지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축적한 지식을 동원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논리를 전개했는지를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제도는 교사가 지식의 일방적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끔 이끄는 것은 물론이고 학습자의 창의력과 논리성을 키우게 된다. 또한 프랑스는 대학이 '이원화'돼 있다. 일반 대학과 그라제콜(Grandes Ecoles)로 나뉜다. 일반 대학은 기초 학문을 육성한다. 하지만 그라제콜은 별도의 입학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을 뽑아 고위공무원 등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한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있는 박윤아(신방3) 양은 "그라제콜 입학 시험은 주로 기특권 계층에 속해 있다"며 "예산과 특혜를 독식하고 있어 프랑스 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프랑스 = 역사, 철학, 지리, 프랑스어 등 대부분의 시험이 논술로 이루어진다. 단편적인 지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축적한 지식을 동원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논리를 전개했는지를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제도는 교사가 지식의 일방적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끔 이끄는 것은 물론이고 학습자의 창의력과 논리성을 키우게 된다. 또한 프랑스는 대학이 '이원화'돼 있다. 일반 대학과 그라제콜(Grandes Ecoles)로 나뉜다. 일반 대학은 기초 학문을 육성한다. 하지만 그라제콜은 별도의 입학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을 뽑아 고위공무원 등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한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있는 박윤아(신방3) 양은 "그라제콜 입학 시험은 주로 기특권 계층에 속해 있다"며 "예산과 특혜를 독식하고 있어 프랑스 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있는 힘껏 잘 하겠습니다" ... 오는 22일부터 3일간 치러질 총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 진영간 선거운동이 활발하다. 이번 주 계획된 각 진영의 선거 유세전을 살펴보면, 기호 1번 정성진 · 우영진 조의 경우 △학내에서 학생들에게 선거공약 설명 및 질의응답 △강의실 유세 △학내 곳곳 선전 활동 등이 계획돼 있다. 또한 기호 2번 유민지 · 구본훈 조는 △학내 곳곳 선전활동 △강의실 유세 △341억 교비환수 내역공과와 등록금 인상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 등을 할 예정이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38대 총학생회 선거 공동 정책토론회

▲일시=11월 15일(화) 6시~9시
▲장소=문화관(K) 308호
▲주제=△동국 100주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교육환경 개선 정책(복지, 등록금, 시설 등)

38대 총학생회 선거 공동유세

▲일시=11월 16일 수요일 1시
▲장소=불상 앞

박영석 동문, 장학금 기증

지난 5월 1일 세계 최초 산악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박영석(체교91졸) 동문이 우리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한다. 박영석 동문의 장학금 기부는 이번이 두 번째이며 오는 15일 11시 30분 총강당에서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된다. 장학금의 정식명칭은 '박영석 탐험대장 산학 장학금'이다. 이번 장학금 기부와 관련해 박영석 동문은 "나를 키워준 모교에 다니는 1% 가능성에 도전하는 후배들을 위해 이번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본교 인사 발령

△법과대학장=이상영 △건축학100주년기념사업회 사업본부장=조의연(학생처장 겸직) △학생상담센터소장=권동희 △영상문화콘텐츠연구회장=정재형 △생태환경연구센터장=김일중 (이상 11월 7일자)

본사사령

◇ 임수승기자
▲ 정은미 (문과대 국어국문 1)
▲ 어기용 (사과대 1)
- 이상 11월 14일자

칭찬합니다

우리 신문은 건학 100주년을 맞아 동국 화합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학내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칭찬합니다'를 기획 연재한다.

⑩ '사랑'으로 맛을 내는 요리사 임조경 직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무엇일까? 매콤한 떡볶이? 구수한 된장찌개? 사람마다 입맛이 각자 다르겠지만 여기에 세상 사람 모두가 최고라고 인정할만한 사랑이 담긴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있다. 바로 대부도 청소년의 집 아이들에게 한끼씩 음식을 만들어 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인사관리팀 임조경 직원이다. 칭찬 받을 만한 일은 아니라며 수줍게 말문을 연 그는 7년 전 직원노조 사회봉사부의 일원으로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봉사활동 하는 날에는 아침 일찍 장을 보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음식을 다 만드느라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지만 아이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 날 하루의 피곤이 씻은 듯이 가신다고 한다. 처음에는 부모 없는 아이들이 마냥 안쓰럽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내 자식 같이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임조경 직원. "처음 들어와서는 해맑게 장난도 잘 치던 아기가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말도 잘 안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하지 않을 때 마음이 아프죠." 이렇듯 부모로부터 버림 받은 아이들이 받은 상처를 그는 사랑으로 아리게 해주려고 항상 애쓰고 있다. 청소년의 집 아이들이 지금처럼 밝고 바르게 자라려면 좋겠다는 그의 따뜻한 소망이 가을바람으로 쌀쌀해진 동악을 훈훈하게 한다. <해> iamjh713@dongguk.edu

지난 1415호 동대신문 1면 '총학선거 둘러싼 성명공방' 기사에서 제목을 '예산안 둘러싼 성명 공방'으로 '총학 비대위'를 '불교대 · 문과대 · 사과대 · 경영대 · 야간강좌 총학생회'로 바로잡습니다. 또한 전직 이과대 · 생지대 · 공과대가 제기한 난타USA 문제가 편집상의 착오로 게재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전기금 060-700-0119

동대신문사

총학 비대위 한계점 드러나

구심점 역할 부재, 학생회 침체로 이어져

38대 총학생회 반드시 구성돼야

지난 2004년 제36대 총학생회장 과 부총학생회장이 학사경고로 제적되면서 2학기부터 36대 총학생회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총학 비대위) 체제로 운영됐다. 이어 그 해 11월에 진행된 37대 총학생회선거는 출마자가 없어 무산됐고 다음해인 2005년 3월 보궐선거가 치러졌지만, 단독후보자가 선거 전에 후보직을 사퇴함으로써 또 한번 선거가 무산됐다. 이로써 총학생회는 사상 최초로 1년 방동한 정식 조직이 구성되지 못한 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됐다.

이렇게 총학생회가 건설되지 못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유지됨에 따라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가장 큰 문제는 1만 2천 동국인들을 대표하는 총학생회가 부재함으로써 학생들을 하나로 모아 주는 구심점도 함께 사라졌다는 점이다. 올해 보궐선거 이후, 12개 대

학 단과대 모두 학생회가 구성됐지만 총학생회가 부재함으로써 각 단과대 간의 협력사업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박해영(멀티공4) 정산대 학생회장장은 “어느 단과대 학생회장인 자신이 속한 단과대들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며 “중간에서 조정 역할을 해주고 이끌어주는 총학생회 부재로 각 단과대들이 하나로 합쳐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등록금 인상, 공간문제, 건학 100주년 사업 등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통합된 학생들의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총학 비대위가 엠프대어, 물품 대여, 농활, 대동제 등의 사업을 진행했지만 이는 기존에 총학생회가 진행하던 사업들 중 중요하고 기초적인 일들만을 추진한 것이다. 또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산분배가 특정 사업에 치중

돼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총학 비대위 오선일(국고4) 사무국장장은 “비대위 체제가 이렇게 오래 지속된 적이 없어 체계적으로 운영하지 못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예산분배에 문제가 생긴 점은 학생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총학 비대위의 경우 1만 2천 동국인들에게 인정받은 공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력있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는 총학생회 뿐만 아니라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총여학생회 등의 학생자치기구들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돼 전반적인 학생회활동이 침체됐다.

오는 2006년 건학 100주년을 이끌어 갈 38대 총학생회 선거가 이제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총학생회 부재로 인해 야기됐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학생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이번에는 총학생회 건설이 꼭 성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단기기획 ② 등록금인상 불가피한것인가

1. 국고보조금 2. 기부금

국고보조금 확대로 등록금 의존률 낮춰야

지난달 27일 연세대에서는 지난해 이월적립금 1.81억 환수와 2006년 등록금 인하 요구를 위한 연세대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소속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연세대 운동본부는 앞으로 이월 적립금과 관련해 홍익대, 이화여대 등 서울 시내 사립대학과 연대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등록금 책정을 둘러싼 학교와 학생 간의 이러한 마찰은 매해 되풀이 되고 있다.

우리학교 역시 2003년에는 5%, 2004년 8% 등록금을 인상했으며 올해도 사립대 평균 인상을 5.1%를 넘는 7%를 인상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등록금 인상이 “불가인상, 신규교원 채용의 증대, 교직원 인건비 상승 등과 더불어 건학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사실 지난해 인건비 증가액만 해도 등록금 수입 증가액과 맞먹는 수준임을 감안해 볼 때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사립대학 전체 재정의 등록금의존율이 60~70%에 육박한다는 데 있다. 학교가 수입증대를 위한 재정부담을 전적으로 학생들에게만 지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립대학 재정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이유는, 재단전입금이나 기부금은 경기상황이나 학교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반면, 등록금은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특히, 재단전입금의 경우 현재 학교 운영수입의 약 5~6%에 그칠 뿐만 아니라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재단 전입금은 재단의 의무사항이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한 수입원이 된 지 오래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가 등록금 외에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국고보조금 확충이다. 하지만 현재 국고보조금은 대부분의 사립학교 재정의 5%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수노조 박정원 기획정책실장은 “최근에는 사립대학교육도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 사실이다”며 “국가에서 사립 중·고등학교 교직원 임금을 해결하고 있듯이 전체 운영지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 교직원 임금도 국가에서 부담한다면 등록금의 30%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재정은 대부분 초, 중, 고의 교육재정 지원에 국한돼 있어 대학 교육의 예산은 전체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의 11%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더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지원예산도 80% 이상이 국립대학의 지원에 치중돼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멈출 줄 모르고 높아져만 가는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의 사립대학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국가는 대학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당분간 국고보조금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경민 기자
nanakm@dongguk.edu

회전무대

달레마

○...일부 수업시간은 교수를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한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학생들의 집중 시간과 과목 특성에 따른 수업 진도, 난이도를 고려해 볼 때 2시간 수업을 1시간만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그것이 옳은지 갈피가 서지 않는 것이라고.

처음부터 학생들의 집중시간과 과목특성을 고려해 수업을 구성하고 수업시간을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집중력 부족 2개, 수업의 효율성 저하 7개(!)”

학생들은 부재중

○...오즘 각 학과에서 진행되는 행사들은 주인 없는 잔치라는데. 알아보니 각 학과 학생회에서 준비하는 학술제, 기념행사에 과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해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학과 학생들이 소속감과 관심을 가지고 과 행사에 활발하게 참여해 의미있고 전통있는 학과 행사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보이지 않는 그들, 정체는 무소속 학과(!)”

다향관의 약점

○...다향관 실내 휴게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산이 필수품이라는데. 상황인즉 비 오는 날이면 다향관 휴게실에 비가 새서 휴게실 테이블과 바닥 여기저기에 물 웅덩이가 생기는 것이라고.

다향관 휴게실은 스타디움 하거나 음식을 먹고, 휴식을 취할 때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만큼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시급히 보수공사를 실시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향관의 천적은 비(!)”

배상은 나의 것

○...우리학교는 불교종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자비정신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각 건물에서 단상사고가 날 때마다 그 건물 담당 경비들이 분담하여 손해액을 전액 물어야 하는 것이라고.

단상사고에 일부 책임은 있지만 충분한 임금을 보장받고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단상물품에 대해 100% 배상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가 아닐는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자비를 베푸는 데도 예외는 있다(!)”

▶면에서 계속 그랑제콜의 수업은 이론보다 세미나와 현장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이 중에서 명문으로 분류되는 ENA의 경우 1년여 간에 정부부처 실무수습 과정이다. 수업도 ‘별안과 예산안’, ‘사회현안과 관련된 설문조사’ 등 실무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창의성과 논리성을 중시

로 공부한 학생들이 갖고 묶은 지식은 교육현장에서 직접 활용하면서 현장 감각을 익힐 수 있다. 이에 그랑제콜 출신들은 졸업하자마자 현장에서 능숙하게 일처리가 가능하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 길러내는 셈이다. 일반대학은 모든 학위가 전 공별로 전문화된 대신 대학간 격

차, 대도시와 지방대학의 차별도 거의 없다. 지방대도시에도 여러 개의 대학이 있지만 학과가 중복 개설된 경우는 없다.

대학별로 특화된 프랑스 대학의 실용주의는 문어발 화장을 통해 덩치를 키운 뒤에 학맥을 재 생산하려는 우리나라 대학과는 분명히 다르다.

자랑스러운 동국인 선발

학술분야에서 우리학교 이미지 향상에 기여한 자

우리학교가 건학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각 학과, 대학원, 특수대학원에서 ‘자랑스러운 동국인’을 추천 받는다.

‘자랑스러운 동국인’ 자격은 학술분야 및 해당 학과와 유사한 사회활동을 통해 우리학교 이미지 향

상에 기여한 자이며 △건립이후(1906-) 우리학교에서 학부, 석·박사과정을 수학한 자 △동국대학교 승격 이전(1906-1945)에 강사로 재직 한 자 △동국대학교 승격 이후(1946년 이후)에 전임 교원으로 재직 한 자이다.

접수시 구비서류는 △자랑스러운 동국인 추천서 1부 △추천자 사진 1매 △업적증명자료 및 기타 후보자 관련자료 1부이다.

자랑스러운 동국인은 학과별로 추천받은 후보자들 중 선정위원회, 교무위원회 또는 정책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한편, 학교는 이번엔 선정된 ‘자랑스러운 동국인’에 관한 책자도 발행할 계획이다.

역경원장 율운스님 은관문화훈장 수여

지난 11일 윤허 큰스님 25주기 추모제 겸 역경원장 율운스님 은관문화훈장 서훈 축하법회가 봉선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법회는 윤허 큰스님의 제자들이 영전에 참배를 하고, 율운스님과 함께 큰스님 밑에서 배운 지관스님이 축하의 의미

를 담은 염향문을 읽는 순으로 진행됐다. 율운스님은 역경원의 설립자인 윤허 큰스님이 생전에 완성하지 못한 판판대장경 한글 완역 사업을 2002년 완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음을 인정받아 지난달 15일 은관문화훈장을 수상했다.

동국인 합심위한 법회 21일

정각원(원장=이진철)이 오는 21일 오후 4시 정각원 법당에서 겨울 맞이 동국구성원 정진 법회를 개최한다. 역경원장 율운 큰스님을 법사로 하는 이법 법회는 동국인의 합심을 위해 개최되며 동국인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홍기삼 총장은 11일 오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각각 방문, 전경련 조건하 상근 부회장과 경총 김상배 상근 부회장과 만남을 가졌다. 홍총장은 “100년의 역사속에서 많은 동문들이 우리나라 발전의 초석이 되어왔다”면서 “건학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을 창조할 것이며 세계화에 걸맞는 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해관 보관함 410여 개 증설

학생들 수요 만족 위해 ... 내년 1학기부터 사용가능

만해관 보관함이 앞으로 410개 증설된다. 중앙도서관(관장=정진환·교육학)은 매학기 신청에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는 만해관 보관함

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보관함 증설계획을 밝혔다. 이번엔 증설되는 만해관 보관함

은 내년 1학기부터 사용가능하고, 만해관 2·3·4층에 설치될 예정이다.

중앙도서관은 지난 11월 30개를 우선 설치해 시범운영하며, 새 보관함은 기존 중앙제어장치와 달리 함 각각에 번호표장치까지 설치된다.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월	참치저자찌개 (1800)	짬뽕국밥 (1800)	된장찌개 (3200)
(11/14)	제육갯잎볶음 (2000)	치즈볶음밥 (2000)	돈갈비김치찌개 (3500)
	베이컨아채볶음밥 (2000)	불고기비빔밥 (2000)	코다리무조림 (3500)
화	설렁탕 (2000)	우거지김치탕 (2000)	된장찌개 (3200)
(11/15)	간풍기 (2000)	오삼불고기 (2000)	영양살밥 (3500)
	쇠고기버섯덮밥 (2000)	참치김치덮밥 (2000)	계장백반 (3800)
수	갈비경단백반 (2000)	닭개장 (2000)	된장찌개 (3200)
(11/16)	쇠고기양송이볶음밥 (2000)	간자장밥 (2000)	동태매운탕 (3500)
	소세지김치찌개 (1800)	떡만두국 (1800)	우갈비찜 (3800)
목	바치릭된장찌개 (2000)	찌개백반 (2000)	된장찌개 (3200)
(11/17)	닭도리탕 (2000)	오징어덮밥 (2000)	떡배기불고기 (3800)
	카레라이스 (2000)	제육고추장강정 (2000)	고등어김치조림 (3500)
금	시골우거지탕 (1800)	해물수제미 (2000)	된장찌개 (3200)
(11/18)	탕수육 (2000)	쇠고기볶음밥 (1800)	김치탕 (3500)
	오징어비빔밥 (2000)	순대볶음 (2000)	꾸꾸미아채볶음 (3500)

2006 전기 동국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일반전형)

- 모집학과 : 석·박사과정 및 학과간 협동과정
- 모집인원 : 각 학과별 약간 명
- 지원자격

- 1. 국내·외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 취득자 또는 2006년 2월 취득예정자.
- 2.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형방법

- 1. 석사과정 : 서류전형 및 면접(미술학과: 실기시험)
- 2. 박사과정 : 필기시험(영어, 전공) 및 면접, 제 2외국어(불교·인도철학과에 한함)

- 전형일정

구분	일시	장소 및 유의사항
원서교부 및 접수	2005. 11. 10(목)~ 11. 25(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부 가. 인터넷 홈페이지(www.dongguk.edu/gs) 나. 서울캠퍼스: 학사관 1층 대학원 행정지원실 다. 경주캠퍼스: 진흥관 1층 사회과학 대학원 행정지원실 ○원서접수 가. 인터넷접수 : 2005. 11.17(목)~11.24(목) 17:00시 까지 나. 방문접수 : 2005.11.22(화) ~ 11.25(금) 17:00시 까지 ○ 10:00시부터(면접은 학과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가능) ○ 시험전일 대학원 홈페이지 공고
전형일시 및 장소	2005. 12. 10(토)	
합격자 발표	2005. 12. 23(금) 14:00 예정	대학원 홈페이지 공고
등록기간	2005. 12. 26(월)~ 12.30(금)	조흥, 제일 전국 각 지점

- 장학
- 1. 외국인 입학생은 등록금의 50% 장학금 지급
- 2. 각종 교외장학, 조교장학(연구, 교육 및 행정조교), 총장장학, 교시장학, 공인회계사장학 등 다수가 있음
- 3. 화학, 물리, 수학, 생물학과 입학생에게 특성화 장학금 지급
- 4. 화학공학과 입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5. 분교 학사, 일반대학원 석사 출신 입학생 전체에게 입학금 면제(졸업 후 3년 이내 진학자)
- 6. 국문, 반도체과학과 입학생에게 특성화 장학금 지급
- 7. 학생회 간부에게 장학금 지급
- 8. 해외자매대학 교환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 *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동국대학교 대학원
www.dongguk.edu/gs
TEL. 02-2260-3094~5, 3116
FAX. 02-2260-3685

2006학년도 본교 파견 해외 자매대학 교환학생 추가 선발계획(안)

1. 파견기간 : 2006. 3. ~ 2007. 2. (1년)
2. 선발인원 : 23명
3. 교류대학별 선발인원·지원자격·수학조건 : 별첨
4. 본교측 파견조건

가. 파견기간 중의 등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 재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본교 장학금 선발규정에 의거한 해당자에 한하여 학기별로 장학금을 지급함. (교류대학 학비를 본인부담하는 경우에는 본교 등록금의 72%를 감면하며, 교류대학 학비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본교 등록금의 38%를 감면함)

나. 파견기간 중에 취득한 교과목의 명칭·학점·성적은 교류대학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수구분 등 동일한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속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 주임교수가 결정함.

다. 학원인정 범위는 소속학과 졸업학점의 1/4까지로 함.

교류대학별 선발인원·지원자격·수학조건	국기명	대 학 명	선발인원 (캠퍼스별)	지원자격(개별)	수학조건
캐나다	UBC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10(서울5/경주5)	TOEIC 600점 이상 취득자	· 학부과정 3~5학기 재학생 (캐나다 UBC의 경우에는 3~6학기 재학생)	· 학부·기초사비 본인부담 · 학비 면제, 기숙사비 본인부담, 장학금 학비 면제, 기숙사비 본인부담, 장학금 학비 면제, 기숙사비 본인부담
일본	Kyushu Sangyo University	1(경주1)			· 학비·기초사비 본인부담 · 학비·기초사비 본인부담
중국	Beijing Foreign Studies University	1(서울1)	HSK 3급 이상 취득자		· 학비·기초사비 본인부담 · 학비·기초사비 본인부담
중국	Sichuan University	4(서울2/경주2)	HSK 3급 이상 취득자		· 학비·기초사비 본인부담 · 학비·기초사비 본인부담
중국	Sun Yat-sen University	4(서울2/경주2)	HSK 3급 이상 취득자		· 학비·기초사비 본인부담 · 학비·기초사비 본인부담
중국	Zhejiang University	2(서울2)	HSK 3급 이상 취득자	· 문과대학 소속 재학생	· 학비·기초사비 본인부담
계		23(서울13/경주10)			

1. 지원자격(공동)
- 가. 학부과정 3~5학기 재학생 (캐나다 UBC의 경우에는 3~6학기 재학생)
- 나. 학부과정 학기당 평균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총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이며,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
2. 캐나다 UBC 교과목 안내
가. IT 관련 분야 나. Liberal Studies 관련 분야

국 제 교 육 원

2006학년도 총학생회 후보자 인터뷰

2006 학생회 선거 후보등록 결과 38대 총학생회 선거에 기호1번 정성전(경영3)·우영진(기계4), 기호2번 유민지(사회4)·구본훈(국교4) 조가 입후보했다. 이에 각 후보들을 만나 입후보한 이유와 주요공약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기호 1번 정성전 / 부 우영진

기호 2번 정유민지 / 부 구본훈

“다양한 문화행사 통해 ‘다가가는’ 학생회 만들 것”

- 선거에 입후보 하게 된 이유는.
= 백상 응원단장 활동을 하면서 타 대학들의 문화행사를 접했다. 이를 통해 우리학교 문화가 상대적으로 침체돼 있는 것을 느꼈다. 또한 그동안의 대동제 등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진정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다. 이를 계기로 학교를 관심 있게 바라보게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의 총학생회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4년 총학생회의 경우 학생들의 소중한 권리를 선택된 학생회장에게 제적으로 자리를 비우게 된 사례는 의무를 저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물론 학생회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를 다시 바꾸어보는 생각에서 용기를 내 입후보하게 됐다.

이지 않고 발상한 총학생회 관련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작년과 올해의 총학생회가 부재한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는 학생들의 권리를 대변할 만한 기반 자체가 흔들린 것이라 볼 수 있다.



왼쪽 정성전(경영3) 오른쪽 우영진(기계4) 후보.

- 선거 모토에 대해 설명한다면.
= ‘이제는 바뀌어야’를 이번 선거의 모토로 내걸었다. 현재 서울에 38개 대학 중 22개의 대학이 비운동권 학생회가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학교는 10년째 운동권 총학생회를 고수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학생회는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고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정책이나 행사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실제로 그동안의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학생들이 얼마나 학내 문화행사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 느꼈다. 다양한 분야의 문화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총학생회가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1970, 80년대 민주화를 위해 대학생들이 정치적 사안에 관심을 쏟았던 시대는 이제 갔다고 본다. 시대가 변한 만큼 이제는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내실을 쌓을 수 있는 부분에 관심을 보인다고 생각한다.

한총련 탈퇴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 한총련 연합체로 가입돼 1년에 600만원 정도의 가입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연합체 부담금의 지불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원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지난 10년간의 학생회를 생각해도 학교 내부적인 학생들의 요구보다는 외부적인 정치적 활동에만 치중했던 것이 사실이다.

21세기의 학생들은 자신의 내실을 위해 힘쓰는 학생회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학생회가 주체적으로 바뀌어나가 학생들 역시 학생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학생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모임을인지 생각해 봐야 할 때이다. 굳이 한총련에 가입해 있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사회적 부분까지도 활동하고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의 일부 운동권 학생들에게 치중돼 있던 부분을 최대한 학생들에게 쏟고자 한다.

- 지난 학생회를 평가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언제나 총학생회 선거가 다가오면 학생들에게 다가간다고 공약을 내세우지만 막상 일반 학생들은 학생회장, 부회장의 얼굴조차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회가 앞장서서 학생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그동안 풀

고 있는 부분은.
= 총학생회가 몇 년째 부재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학생회가 여성의 권리 보호를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학생회가 부재할 경우 총학생회 내부에 여학생회 자치 기구를 두고 여학생들의 휴게실, 숙면실 등의 마련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또한 토의 패스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가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무료 사이버 토의제도를 실시해 적은 비용으로 토의이나 영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방안을 학교와 논의해 나갈 생각이다. 또한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동기 유발을 위해서라도 현재의 턱없이 부족한 장학금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해외 프로그램의 확대를 주장해 갈 것이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학생 참여와 관심 유도하는 ‘열린’ 학생회 될 터”

- 이번 선거에 입후보한 이유는.
= 그동안 총학생회 부재로 여러 가지 학내 사안들에 대해 학생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어 내고 참여할 만한 소통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의 복지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 문제까지도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총학생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했다. 그동안의 학과, 단과대 학생회 대표를 하면서 느끼고 배웠던 부분과 문제점들을 총학생회라는 학교 전체의 대표적인 틀에서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 그러한 이유로 뜻을 모아서 출마하게 됐다.

의견과 발언권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해마다 인상되고 있는 등록금으로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동안의 등록금 인상 반대와 관련한 운동이 분관절, 시위 등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 해부터는 무엇보다도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 한다.



왼쪽 구본훈(국교4) 오른쪽 유민지(사회4) 후보.

- 해가 갈수록 학생회가 침체되고 학생들의 위엄을 받고 있다. 학생회 위기의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나.
= 현재의 학생회는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총학생회뿐만 아니라 학과, 단과대 학생회 역시 학생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학생들의 참여 부족을 떠나 학생회 자체적으로도 학생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본연의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학생회가 건설되면 가장 기본적인 학과 학생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않는다. 굳이 탈퇴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고 있는 한총련 분납금을 내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선전 사업 등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 이 역시도 지속적인 학생들과의 의견 교환과 토론의 과정을 통해 진행해 갈 것이다.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백지 예산안’의 추진이다. 이는 총학생회의 예산이 되는 학생회비의 일부와 학과, 소모임, 학회 등의 행사나 사업 계획 공모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총학생회는 학과와 단과대의 튼튼한 지원책이 자칫 비뚤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선거운동과 함께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등록금 책정 협의회의 구성을 통해 학교 측에 의견을 전달해 나갈 생각이다.

- 등록금 인상 반대와 관련한 공약에 주요안점을 두고 있는데.
= 등록금 인상과 관련된 학생들의

이런 선거에서 선택되지 않더라도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논의와 활동은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의 한총련 가입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많은데.
= 학생회가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떠한 부분을 따라오라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재의 한총련 가입과 관련한 문제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만약 당선된다면 많은 학생들이 만나고 학생들 속으로 들어가 함께 숨쉬고자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한총련 가입과 관련한 문제도 해결해 나갈 것이다.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이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학생회 등과 통해 한총련 탈퇴도 고려하고 있다.

다양한 동아리들과 동문 예술인들, 학내 가요제 등에서 수상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100주년 기념 헌정 기념 앨범을 제작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또한 학교의 100주년을 외부적으로 알리기 위한 통일 유람단이나 부산 국제영화제 봉사단 참가 등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한총련의 전체적인 사회적, 정치적 견해나 주장의 모두가 현재 학생들의 바람이나 문제들과 완전히 동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않는다. 굳이 탈퇴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고 있는 한총련 분납금을 내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선전 사업 등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 이 역시도 지속적인 학생들과의 의견 교환과 토론의 과정을 통해 진행해 갈 것이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총장장학 수혜대상자 공지

2005학년도 제2학기 총장장학 수혜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no	소속	성명	학년	장학명	비고
1	불교대학 불교학전공	김승태	3	총장(2)	불교대학 학생회장
2	이과대학 통계학전공	정영주	3	총장(2)	이과대학 학생회장
3	법과대학 법학과	황준용	4	총장(2)	법과대학 학생회장
4	사회과학대학 국제학전공	노영현	3	총장(2)	교직원집위원회
5	경영대학 경영학전공	정성전	3	총장(2)	응원단장
6	생명자원과학대학 식물자원학전공	임원철	4	총장(2)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생회장
7	공과대학 전기공학전공	조홍준	4	총장(2)	불교 학생회장
8	공과대학 토목환경공학전공	정영준	4	총장(2)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
9	공과대학 생명·화학공학전공	김종호	4	총장(2)	응원부단장
10	공과대학 기계공학전공	우영진	4	총장(2)	공과대학 학생회장
11	공과대학 건축공학전공	박연호	4	총장(2)	학군단 대대장
12	정보산업대학 컴퓨터공학전공	박혜영	4	총장(2)	정보산업대학 학생회장
13	불교대학 불교학전공	노정남	3	총장(3)	불교학전공 학생회장
14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최진영	2	총장(3)	독어독문학과 학생회장
15	문과대학 일어일문학과	차범민	3	총장(3)	일어일문학과 학생회장
16	문과대학 사회학과	강진희	4	총장(3)	사회학과 학생회장
17	문과대학 철학과	전문성	2	총장(3)	철학과 학생회장
18	문과대학 문헌정보학전공	송현민	4	총장(3)	문헌정보학전공 학생회장
19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이정훈	4	총장(3)	영어영문학과 학생회장
20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이훈구	3	총장(3)	영어영문학과 학생회장
21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권은영	4	총장(3)	동원 학술2부과장
22	이과대학 수학과	이승민	3	총장(3)	이과대학 부학생회장
23	이과대학 수학과	여연호	3	총장(3)	수학과 학생회장
24	이과대학 물리학과	한지현	3	총장(3)	물리학과 학생회장
25	이과대학 화학전공	최태범	3	총장(3)	화학전공 학생회장
26	이과대학 통계학전공	황인수	3	총장(3)	통계학전공 학생회장
27	이과대학 반도체과학전공	조현철	3	총장(3)	반도체과학전공 학생회장
28	이과대학 생활과학	김아름	2	총장(3)	동원 체육교육과장
29	이과대학 생활과학	공보성	4	총장(3)	생활과학과 학생회장
30	법과대학 법학과	김진영	3	총장(3)	법과대학 부학생회장
31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전공	정재현	3	총장(3)	정치외교학전공 학생회장
32	사회과학대학 경제학전공	이재영	3	총장(3)	경제학전공 학생회장
33	사회과학대학 경제학전공	정재용	4	총장(3)	졸업준비위원회 기획국장
34	사회과학대학 행정학전공	전승현	3	총장(3)	행정학전공 학생회장
35	사회과학대학 사회학전공	이동선	4	총장(3)	동원 공인부과장
36	사회과학대학 사회학전공	임차희	3	총장(3)	동원 예술창작부과장
37	사회과학대학 북한학전공	이흥식	4	총장(3)	북한학전공 학생회장
38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전공	변재위	3	총장(3)	동원 학술2부과장
39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전공	황준호	4	총장(3)	신문방송학전공 학생회장
40	사회과학대학 국제학전공	강경준	3	총장(3)	국제학전공 학생회장
41	경영대학 국제통상학전공	장두영	4	총장(3)	국제통상학전공 학생회장
42	경영대학 국제통상학전공	신선애	2	총장(3)	동원 연구부과장
43	경영대학 경영학전공	권순일	3	총장(3)	경영학전공 학생회장
44	경영대학 경영학전공	장재현	4	총장(3)	불교학생회 구도부장
45	경영대학 회계학전공	황재중	4	총장(3)	회계학전공 학생회장
46	경영대학 정보관리학전공	김종명	4	총장(3)	정보관리학전공 학생회장
47	생명자원과학대학 식물자원학전공	이승철	4	총장(3)	식물자원학전공 학생회장
48	생명자원과학대학 식물자원학전공	백현진	4	총장(3)	생명자원과학대학 부학생회장
49	생명자원과학대학 산림자원학전공	이수광	3	총장(3)	산림자원학전공 학생회장

no	소속	성명	학년	장학명	비고
50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자원산업융합학전공	김민준	4	총장(3)	생명자원산업융합학전공 학생회장
51	생명자원과학대학 식품공학전공	전민정	3	총장(3)	식품공학전공 학생회장
52	공과대학 전기공학전공	진찬영	4	총장(3)	전기공학전공 학생회장
53	공과대학 전기공학전공	박상윤	3	총장(3)	전기공학전공 학생회장
54	공과대학 토목환경공학전공	김정수	4	총장(3)	토목환경공학전공 학생회장
55	공과대학 생명·화학공학전공	임정섭	4	총장(3)	동원 사회부과장
56	공과대학 생명·화학공학전공	정세용	3	총장(3)	생명·화학공학전공 학생회장
57	공과대학 생명·화학공학전공	박장호	4	총장(3)	동원 봉사부과장
58	공과대학 기계공학전공	이한동	3	총장(3)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59	공과대학 기계공학전공	김정진	3	총장(3)	기계공학전공 학생회장
60	공과대학 건축공학전공	신수용	3	총장(3)	건축공학전공 학생회장
61	공과대학 건축공학전공	이재현	3	총장(3)	건축공학전공 학생회장
62	정보산업대학 컴퓨터공학전공	백선영	4	총장(3)	정보산업대학 부학생회장
63	정보산업대학 컴퓨터공학전공	이준영	3	총장(3)	컴퓨터공학전공 학생회장
64	정보산업대학 멀티미디어공학전공	복상훈	3	총장(3)	멀티미디어공학전공 학생회장
65	정보산업대학 정보통신공학전공	한광용	3	총장(3)	정보통신공학전공 학생회장
66	정보산업대학 정보통신공학전공	권기승	4	총장(3)	정보통신공학전공 학생회장
67	정보산업대학 산업공학전공	김유석	3	총장(3)	산업공학전공 학생회장
68	정보산업대학 정보시스템전공	박준우	4	총장(3)	졸업준비위원회 기획국장
69	사범대학 교육학과	장정우	4	총장(3)	교육학과 학생회장
70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양규진	3	총장(3)	국어교육과 학생회장
71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유지은	3	총장(3)	수학교육과 학생회장
72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김정영	3	총장(3)	가정교육과 학생회장
73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김태성	3	총장(3)	체육교육과 학생회장
74	예술대학 서양화전공	황재준	3	총장(3)	서양화전공 학생회장
75	예술대학 조소전공	이우준	4	총장(3)	조소전공 학생회장
76	예술대학 연극전공	김정수	3	총장(3)	연극전공 학생회장
77	예술대학 영화·영상전공	김민우	2	총장(3)	영화·영상전공 학생회장
78	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	홍우현	4	총장(3)	문예창작학과 학생회장
79	불교대학 불교학전공	배호영	4	총장(4)	사부부과장
80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김수영	2	총장(4)	교직원집위원회
81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남유지	1	총장(4)	응원단장
82	문과대학 사회학과	문주서	4	총장(4)	학군단 정훈공보참모
83	이과대학 수학과	원준영	2	총장(4)	정보국장
84	이과대학 물리학과	김정룡	2	총장(4)	조직국장
85	이과대학 화학과	장재인	2	총장(4)	문화부장
86	이과대학 화학과	김재진	2	총장(4)	기회국장
87	이과대학 통계학전공	김민정	3	총장(4)	사무국장
88	이과대학 생활학전공	김정진	3	총장(4)	교직원집위원회
89	법과대학 법학과	김민정	4	총장(4)	시설관리국장
90	법과대학 법학과	이미선	3	총장(4)	사무국장
91	법과대학 법학과	장미	3	총장(4)	복지부장
92	법과대학 법학과	성초록	1	총장(4)	기회부장
93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홍은희	1	총장(4)	기회부장
94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이은지	1	총장(4)	선전부장
95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정원철	1	총장(4)	사무부장
96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전공	최정윤	4	총장(4)	정보통신부장
97	사회과학대학 경제학전공	김준영	3	총장(4)	교직원집위원회
98	사회과학대학 행정학전공	김대규	3	총장(4)	교직원집위원회

no	소속	성명	학년	장학명	비고
99	사회과학대학 사회학전공	김혜원	3	총장(4)	기회부장
100	사회과학대학 북한학전공	박세연	3	총장(4)	학군단 3학년정보작전참모
101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전공	김하나	3	총장(4)	정보통신부장
102	경영대학 경영학부(가)	안혜진	1	총장(4)	연대사업국장
103	경영대학 경영학부(가)	박효선	1	총장(4)	문화국장
104	경영대학 경영학부(가)	오인정	1	총장(4)	교육국장
105	경영대학 경영학부(가)	황우선	1	총장(4)	환경국장
106	경영대학 국제통상학전공	고병우	3	총장(4)	교직원집위원회
107	경영대학 경영학전공(가)	박희정	2	총장(4)	사무장
108	경영대학 경영학전공(가)	이순지	2	총장(4)	선전국장
109	생명자원과학대학 식물자원학전공	권오영	4	총장(4)	기회부장
110	생명자원과학대학 식물자원학전공	변지희	3	총장(4)	선전부장
111	생명자원과학대학 식물자원학전공	유재철	3	총장(4)	문화부장
112	생명자원과학대학 식물자원학전공	박기연	2	총장(4)	연대사업부장
113	생명자원과학대학 식물자원학전공	노영동	3	총장(4)	문화부장
114	생명자원과학대학 식물자원학전공	김재우	3	총장(4)	사무국장
115	공과대학 전기공학전공	안우석	4	총장(4)	학군단 군수참모
116	공과대학 전기공학전공	안지선	4	총장(4)	응원단장
117	공과대학 전기공학전공	이윤규	3	총장(4)	학군단 3학년총장
118	공과대학 생명·화학공학전공	윤병용	4	총장(4)	학군단 정보작전참모
119	공과대학 기계공학	이성수	1	총장(4)	편입국장
120	공과대학 기계공학	이은수	1	총장(4)	연대사업국장
121	공과대학 기계공학	김정현	1	총장(4)	대외국장
122	공과대학 기계공학전공	정성섭	3	총장(4)	선전국장
123	공과대학 기계공학전공	하은서	3	총장(4)	문화국장
124	공과대학 기계공학전공	김정우	3	총장(4)	사무국장
125	공과대학 건축공학전공	최정재	4	총장(4)	학군단 인사참모
126	정보산업대학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부	이민호	1	총장(4)	응원단장
127	정보산업대학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부	조창욱	1	총장(4)	연대사업국장
128	정보산업대학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부	신효선	1	총장(4)	사이버국장
129	정보산업대학 컴퓨터공학전공	민다영	4	총장(4)	정책부장
130	정보산업대학 컴퓨터공학전공	김민원	2	총장(4)	사무국장
131	정보산업대학 산업공학전공	가재환	2	총장(4)	응원단장
132	정보산업대학 정보시스템전공	박진경	2	총장(4)	문화국장
133	사범대학 교육학과	최희준	2	총장(4)	교육부장
134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김성수	3	총장(4)	사회부장
135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방정순	3	총장(4)	연사부장
136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이영순	3	총장(4)	기회부장
137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김하나	3	총장(4)	문화부장
138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이오근	2	총장(4)	선전부장
139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김태영	3	총장(4)	교직원집위원회
140	예술대학 서양화전공	이지나	3	총장(4)	문화부장
141	예술대학 조소전공	백병기	4	총장(4)	집행부장
142	예술대학 영화·영상전공	최의영	1	총장(4)	선전부장
143	예술대학 영화·영상전공	정은희	1	총장(4)	사무부장
144	예술대학 영화·영상전공	최원석	1	총장(4)	정책부장

학 생 처

단과대 선거 입후보자 인터뷰

2006학년도 단과대 학생회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6개 단과대의 후보자가 입후보했다. 각 단과대 선거는 오는 22일부터 3일간 진행 될 예정이다. 이에 6개 단과대 입후보자를 만나 인터뷰 해 보았다. 편집자

불교대 불교학 '응용과목' 개설할 것

- 이번 선거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은 = 불교대 학생들이 학과 행사에 책임감을 가지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불교대는 학과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 활발한 편이다. 학생들의 활발한 동아리 활동이 학과와 단과대 차이를 한층 더 높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개개인의 특징을 살려 참여 할 수 있는 소모임 활동

등을 활성화해 단과대학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으로 활용할 것이다. - 불교대학 발전방안에 관한 계획은. = 최근에 불교대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불교계 일자리에 관한 취업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늘려나갈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도 기존의 것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요즘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할 것이다.

'불교학'을 순수 학문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불교학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응용 과목을 개설하겠다. 이러한 작업들은 불교대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이지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학생회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관해 교수님들과 같이 의논하는 시간을 가져 불교대학의 현실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볼 계획이다.



▲ 정 최선진(선학3), 부 한승우(불교3)

〈해〉 iamjh713@dongguk.edu

이과대 학과 행사 전폭적 지지

- 선거 모토 '거세게, 역세게, 가열차게'가 뜻하는 바는. = 모토에 쓰인 단어의 의미 그대로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대학생다운 패기를 가지고 '거세게, 역세게, 가열차게' 하는 이과대 학생회를 세우겠다는 다짐이다. 학생회 뿐만 아니라, 이과대 모든 학생이 공부도, 학생회 활동도, 학과 행사

도 열심히 하는 열정적인 이과대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러한 패기와 열정은 이과대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

- 주요 공약은 무엇인지. = 먼저 과 학생회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 과 학생회가 활발하게 운영된다면 자연스럽게 단과대 학생회도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각 과에서 진행하는 학과 설명회, 학회행사, 학술제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또한 소모임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밖에 이과대 학생들의 불만이 많은 조영 등의 명진관 주변시설 보수와 환경개선에도 힘쓰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취업이 학생들의 중요한 관심사인 만큼, 취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취업에 성공한 학과 선배님들을 초청해 재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할 생각이다.



▲ 정 정하인(반도체2), 부 이기원(화학3)

〈이〉 lee123@dongguk.edu

경영대 공약실천하는 학생회 건설

-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학생회장에 입후보하게 된 계기는. = 2005년도 경영대 부학생회장을 역임하면서 학생들에게 약속한 공약 중 지키지 못한 것들이 있다. 당선되면 내년에는 올해 지키지 못한 공약들을 지키고 학생들에게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다. 반드시 올해보다 더 나은 학생회를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 구체적으로 계획한 사업이 있다면. = △학자△학생회△복지△사회 네 부분으로 나눠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첫 번째 학자사업은 '학부제 바로알기'이다. 현재 광고학과가 사회과학부로 이전됨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많다. 때문에, '학부제 바로알기'를 통해 학부제가 경영대에 알맞은 제도인지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하루에 한 명의 학생을 만나고, 일주일에 9개의 강의실을 찾아가는 '1·1·9만남'을 실천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학생회가 될 것이다.

복지사업은 올해 우산 등 물품 대여가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물품을 확대하고, 도서관도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사업은, 도서관·철원 등 통일 역사 기행을 준비하고 있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학생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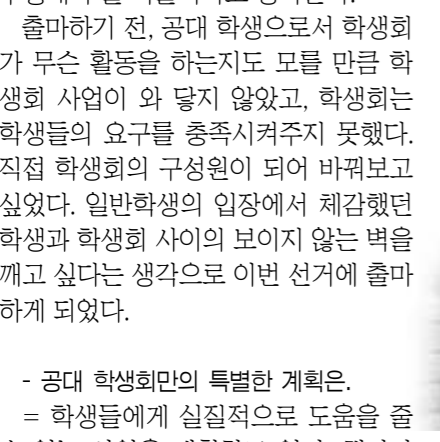
▲ 정 박소혜(정보관리4)

〈현〉 niitake@dongguk.edu

공과대 친근함으로 다가갈 것

- '변화하는 시대, 변화하는 공대'를 만들자'라는 선거 모토의 의미는. = 60~70년대의 대학생들은 정치적인 목적의식이 강했다. 그러나 시대가 급속하게 변해, 오늘날 대학생들은 무관경쟁의 관문을 뚫고 취업에 성공하려면 한눈 팔 시간이 없다. 많은 학생들이 사회운동보다는 개인 활동에 시간을 투자한다. 우리는 앞에서 학생들이 이끌기 보다는 뒤에서 받쳐주고 밀어줄 수 있는 학생회가 되겠다. 이것이 오늘날의 학생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제작하는 다이어리를 실용적이고 예쁘게 만들어 실제로 공대생이라면 누구든 소장하고 다니는 공대생의 트레이드마크로 만들고 싶다. 또한 시험기간에 간식을 제공할 것이다. 사소한 사업이지만, 이런 기회로 학생들에게 학생회 활동에 대한 신뢰와 친근감을 이끌어 내겠다. 각 학과의 특징을 살려 낯과 냄새 나는 열람실 개선 공모전 등도 구상 중이다. 〈현〉 niitake@dongguk.edu



▲ 정 배성훈(건축공2), 부 박한(전기2)



▲ 정 배성훈(건축공2), 부 박한(전기2)

- 공대 학생회만의 특별한 계획은. =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해마다

사범대 교양학교로 대화 늘려야

-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가. = 사범대 특성을 살려 교육 활동을 많이 할 계획이다. 학기 중에는 주말마다 서울지역 사범대 연합에서 주관하는 예비교사 교양대학 참여 기회를 마련하겠다. 또한 방학동안에는 학교 밖 수업의 일환으로 열린 학교, 역사학교 등 청소년 활력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학생들에게 아이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육 어려움지도 모르는 자리지만 많이 부족한 나를 믿고 응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있는 힘껏 노력하겠다. 당선되면 이번 선거 모토인 '이항이와 가는거야, Happy Consulting'처럼 학생들과 함께 활기차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김경민 기자 nanakm@dongguk.edu

사회적인 고민뿐만 아니라 예비교사로서의 고민을 이야기 하는 교양학교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데 주력할 것이다. 무조건 임용고시에 매진하기보다 교육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교육세미나를 통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

-사범대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지난해 교육학과 학생회장으로서 사범대 학생회 활동을 해왔다.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제 역할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같이 할 부후보자가 없어 더



▲ 정 백이항(국교3)

예술대 '하나' 되는 예술대로

- 이번 선거 출마 이유는. = 예술대 학생들은 개인 작업이 많은 편이다. 때문에 학생들 간의 소통이 부족하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편이다. 혼자서 꾸는 꿈은 단지 꿈일 뿐이지만, 다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선거 모토를 '꿈꾸는 청년, 희망을 보다'로 선정했다. 600명 예술대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예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

또한 계열별 등특급 책정방식을 추진해 등특급 인상으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현재 예술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기실이 부족하고, 작업실 환경도 열악하다. 예술대의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고, 문화관에 복지시설을 개축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 만약 당선된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 먼저 '하나되는 예술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동안 과 별로 다른 장소로 갔던 새터를 2006학년도부터는 모든 과가 함께 같은 장소로 가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공연 단체 관람 등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다양화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회 온라인 클럽을 만들어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생회에 자유롭게 의견을 건의하고, 학생회를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이를 활용하겠다.



▲ 정 이혜원(영화영상4)

〈해〉 iamjh713@dongguk.edu

동국대 출판부 발간도서안내 <http://home.dongguk.ac.kr/~book> Tel. 02)2260-3483~4 Fax. 02)2268-7851

1 한국과 일본의 상생문화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편
2005/신국판/350면/16,000원
ISBN 89-7801-150-0 94910

2 인도정통철학과 대승불교
김선근 지음
2005/신국판/548면/26,000원
ISBN 89-7801-149-7 93150

3 변화하는 세계와 지역성
2005/4*6배판/328/18,000원
ISBN 89-7801-139-x 93980

책소개
한국한시대관(韓國漢詩大觀)
*지은이 : 이종찬
*출판사 : 이화
*가 격 : 권당 25,000원 내외
상고시대부터 조선말엽에 이르는 우리 한시(漢詩)의 통시적 변역 작업을 통해 한시(漢詩)의 변역과 명예교수가 마침내 중간 반환점을 들었다. 1998년 정년을 기념하여 1~5권을 선보인 이래 2001년에 6~12권, 2002년에 13~15권, 이어 2005년 올해에는 16~20권을 간행했다. 이번엔 간행된 다섯 권에서는 조선시대의 대문장가인 사가 서거정과 매월당 김시습을 비롯해서 이승소, 김홍직 등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이종찬 명예교수는 우리 학계가 인정하는 한시변역의 최고 권위자. 평소 한문 국역의 중요성을 역설하던 노학자가 자신의 최고 전공분야인 한시의 통시적 변역에 도전한 것 자체가 민족문화번영을 위한 의미 깊은 사건이다. 그의 노력이 잘 마무리 되어야 할 이유는 또 있다. 한문에 정통한 원로들이 워낙 극소수이다 보니 노교수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고 절실하다.
이종찬
1933년 충남 서산 출생.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1977~1998). 현재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풀리다 구름다리)(동국대 역경원, 1991), (대학 현문)(집문당, 1992), (한국 불기 시문학사론)(불광, 1993), (조선 후기 한시 작가론)(이화문화사, 1996), (한국문학의 탐구)(이화문화사, 1998), (한국 선시의 이론과 실제)(이화문화출판사, 2001), (한국한시대관)(이화문화사), (한문의 이해)(참구당), (허용당집 신역)(불리타, 2004, 석도림, 이종찬 역)

21세기에 있어 상생은 이미 지구촌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화두다. 한국과 일본도 상생을 위한 기존의 노력들을 통해 인류의 행복 증진에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경제나 정치와 같은 분야에서는 아직도 자국의 실리주의가 우선시 되고 있으며, 다른 분야에서도 지금까지의 것보다는 좀 더 새로운 사고의 틀에서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보충하고 12권의 글들을 담고 있다. 이 책에서 주목할 부분은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쓴 종교, 문화, 경제, 역사에 관한 글들이다. 한국과 일본의 종교적 상생을 다루는 '한·일 불교연구에서 상호 인식의 문제(고영선)'와 '불교와 공생의 이념과 실천(이시카미 겐노)'는 종교적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한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화해 상생의 정치를 찾아서(윤준우)'와 '한·일간의 공생정치(김영림)'는 21세기가 요구하는 한·일 정치의 현실적 공존을 명확하게 거론한다. '글로벌 화(化) 속의 일본 경제(호리에 아쓰히코)'는 과거와 현재의 일본의 경제 진단을 통해 한·일간의 경제적 상생을 탐색하는 김갑이 역할을 해 줄 것이며, '유메노 유사쿠(夢野久作)에 있어서의 조선인식문제(구로키 료지)'와 '친일문제의 통시사적 시각과 해법(유일화)' '일본 현대문학의 과정과 전망(오사카)'과 같은 문화 관련 글들은 일본 문화 속에 존재했던 한국의 요소를 새로운 시각으로 관조하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 문화 속에 잠재했던 서로의 이질적 요소를 보다 넓은 시야로 바라보며 상생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나당전쟁 전후 신라 일본간 외교관계 추이와 그 배경(김신숙)' '신라의 대일 저지제 외교의 허구(이희진)' '한·일 다보탑의 비교 연구(김수현)'는 우리의 역사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성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책의 무게를 실어준다. 특히, 이 책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것은, 한·일 양국의 상생문화를 객관적 시각인 독일인의 관점에서 글을 쓴 '다행신사와 마이스터 역카르트 상상에 대한 비교 연구(볼런드 피어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한·일간의 상생을 외치는 해법이라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그 해법과 현실을 제시하려면 가슴으로 와 닿는 글을 찾아가 길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이런 시기에 '한국과 일본의 상생문화'가 세상에 빛을 볼 것이다.

만일 인도철학은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의 범주를 구분할 경우, 인도철학에는 서양철학과 비견될 만한 독특한 논리 체계와 동양철학의 직관과 통찰을 모두 融會融通하고 있어 동서철학의 종합적 融會融會를 가진 제3의 종합적 철학이자,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철학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매우 방대하게 펼쳐져 왔지만, 인도인들의 일관된 관심사는 바로 세상의 본질과 자아의 본질을 어떻게 규명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갈등은 세상이 자신과 다른 것이라는 진리를 認識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철학·종교를 한 범주로 아우르고 있는 학문이다. 인도철학에서는 먼저 세상의 본질을 규명함에 있어 세계의 본질을 神이라 했다가, 신의 본질 곧 神성이 모든 존재 안에 내재한다는 우주창조의 靈神論과 궁극원리로서의 唯-者 개념으로 발전하여 신의 본질인 브라흐만(Brahman)과 존재의 본질(자아)인 아트만(Atman)이 결국은 동일한 것(梵我一如)이라는 사고의 확대가 이루어지는데, 본 책에서는 이에 대해 세상에 실재한 없고 그저 인간과 우주의 본성이 텅 비어 있다는 無我와 空思想을 내세운 대승불교의 교리를 집약시켜 인도철학과의 사상적 연인과 兩隣關係를 살피고 있다. 그러나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일관되게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바로 범종교적인 梵我論의 추구로서 業과 輪廻, 그리고 이의 解脱을 통한 苦惱의 종식을 위해 현실세계에서의 救渡와 眞理의 把握, 그리고 眞理에로의 實踐의 體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이상적 세계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서 인도정통철학에서의 神性이 내재한 진리 把握의 人物(Saty grah)과, 대승불교에서의 佛性을 가진 중생 구제 목적인 菩薩 등의 이상적 인간형을 상징하여 그들의 행위 자체가 종교전리의 구현이요, 실천이자 깨달음의 회향임을 밝히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인도철학의 주요한 큰 흐름을 통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철학적 가치와, 대승불교에서의 완성도 높은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주제들을 선별하여 각 시대별로 대표적인 철학적 문헌들과의 대비를 통해 종합적으로 백백한 사상적 일계를 그려나감으로써 저자가 일생동안의 학문연구를 통해 추구하던 주제 의식을 잘 담아 정리해 놓고 있다. 본서 《인도정통철학과 대승불교》는 크게 제1부 인도철학과 大乘佛敎의 思想, 제2부 理想의 人間에의 수행과 實踐, 제3부 간다철학 형성에 끼친 베다파 철학과 대승불교 등으로 분류되고 있고, 이것을 세분하면 제1장 印度哲學의 性格, 제2장 《리그 베다》에 나타난 불교적 思想의 始原, 제3장 우베나사드에 나타난 二諦論의 思想, 제4장 가우다빠다의 철학에 끼친 大乘佛敎의 影響, 제5장 가나야가 페라다임으로 본 金剛經의 阿 多羅三 三三經, 제6장 까르마-요가 페라다임으로 본 《華嚴經》의 普賢行願, 제7장 바바-요가 페라다임으로 본 《法華經》의 觀音行願, 제8장 초기 대승경전이 간다 無所有 사상에 끼친 영향, 제9장 간다의 形而上學에 끼친 불교의 영향, 제10장 간다의 형이상학에 끼친 아드바이타 베다파 철학의 영향, 제11장 간다의 倫理學 思想에 끼친 불교적 영향, 제12장 간다의 윤리학에 끼친 리마누자 바리 사상의 영향, 제13장 간다 철학에 끼친 (바가바드기타)의 영향, 제14장 (바가바드기타)의 '까르마-요가'에 대한 간다적 해석, 제15장 아비사 정서의 사적(史的) 전개와 현대적 실천방안 등으로 분류된다.

인문지리학은 기초학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생활에 가장 필요하고 활용범위가 넓은 응용학문이기도 하다. 또한 오늘날 더욱 복잡해지고, 다원화되고,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를 이해하는데 가장 적절한 학문중의 하나가 인문지리학이다.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발전한 과학 기술로 세계를 바꾸어 놓을 정도의 변혁을 이룩하였으며,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겪으면서 공간지각의 변화를 경험해 왔다. 과학기술이 발달은 인간의 편의만을 위해 지구를 바꾸어 놓는 도전에 이젠 친환경적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간을 돕고 있으며 세계의 힘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힘의 변화, 세계화와 지역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요소들의 변화와 사례를 나타내는 인간 삶의 변화 등 지표상에 나타나는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관련성도 역시 변화하고 있다. "변화하는 세계와 지역성"은 이러한 변화를 인문지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한 책이다. 아울러 이 책은 독자들에게 세계화와 지역화가 공존하는 세계에서 각 지역의 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변화하는 세계를 인문지리학적 시각에서 다양하게 고찰할 수 있도록 경제, 인구, 농업, 도시, 정치, 문화, 경관, 기술혁신 등의 주제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셋째, 각 주제별로 구분된 장에는 주요 요점과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기술 되어 있다. 넷째, 변화하는 세계와 지역성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대량과 관련된 많은 지도와 사진, 그리고 도표가 삽입되어 있다.

거듭나는 학생회로 대학 민주주의 구현



논단

김수민
유니스트
칼럼리스트

계절이 돌고 바뀌어 늦가을을 맞이했고 올해도 어김없이 학생회 선거철이 다가왔다. 학생회 선거의 양상도 되풀이되고, 학생회를 둘러싼 찬반 논란과 대다수 학생들의 무관심으로 1년이 금세 지나간다. '운동권이나 비운동권이나'는 지겨운 질문은 좀 뒷전으로 잊혀두자. 허무하지도 않은가, 선거국면에서 토론하여 표를 결정하

면 그만일 의제를 붙잡고 열을 올린다는 것이. 정작 절실한 것은 학생사회의 피로감과 무심함을 낳았던 총학생회의 한계를 짚는 일임에도, 세력과 성향을 따르려고 그 누구에게도 진지한 성찰이 발견되지 않는다. 대학가의 '총학생회 중심'대의제 민주주의'에 기약없는 어둠이 찾아온 것이다. 더욱이 지금은 학생사회의 온전한 대변자, 진정한 대안을 총학생회 선거에 나설 수 있는 수준의 조직화를 이룬 집단들 가운데서 찾기가 어렵다. 차라리 투표를 저하로 총학생회 수립이 좌절되는 편이 현 학생사회의 실정을 솔직히 토로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총학생회가 학생들을 대변하는 정도는 대체로 단선으로 출마해 당선되는 과반단위 학생회장보다도 약했다. 그런 주제에 '군림'했다. 동시에 총학생회는 군림하며 질어져야 했던 무거운 짐에 휘청거렸다. 결코 역량을 키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총학생회는 총학생의 회의가 아니라

총단위(한 학교)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학생회일 뿐이다. 총학생회는 권력과 책임을 아래로, 이를 데면 단과대학생회와 과반학생회에 나눠야 한다. 분권과 자율의 미명 하에 방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단과대학생회와 과반학생회 역시 아래로 권력과 책임을 나눠야 하며, 총학생회는 그것을 지켜보고 참견해야 한다. 공색하면 공색한대로 공식적이고 유력한 '학생총회'가 열려 광장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도 터야 한다. 크고 작은 대의기구와 직접민주주의의 물결이 맞물리며 견제하고 보완하고 갈등하고 협력해야 한다. 총학생회는 자기 지향을 지키고 구현하면서도 기각의 위협에 기꺼이 뛰어 들어야 한다. 총학생회의 시대가 저물었음을 인식하는 것이 곧 총학생회의 가치를 살리는 길이다. 총학생회가 과감히 학생사회에서 잠여민주주의를 시도하여 '괴잉'을 해결한

경험은, '결립'된 요소들을 보충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총학생회는 학교 당국에게도 권력과 책임의 분산을 요구하라. 등록금투쟁을 벌이는 단체가 아니라 등록금을 책정하는 주체로 거듭나라. 물론 메아리가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안다. 그래서 공을 유권자에게 돌린다. 어떤 일꾼에게 총학생회를 맡길 것인가. 자리도 권한도 없는 학생들에게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겸허하고 용기있는 일꾼에게 맡겨라.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랐던 쪽, 혹은 그럴 것 같은 쪽은 가장 먼저 선택지에서 지워라. 기권을 하더라도 "기만을 걸 어치우라"는 말이라도 투표지에 적고 나오라. 총학생회비 납부거부, 불신임운동 등 '속편'에 쓸 카드도 항상 준비해 두라. 의식있는 사람 몇명이라도 이젠 좀 총학생회, 나아가 학생사회 민주주의를 두고 1년 내 내 사고하자.

열린글터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TEL: 2260-3491·2 FAX: 2279-1270 문의·재보: dgupress@dongguk.edu

무관심과 편견 벗고

동악을 하나로 만들자

가을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학과 학생들이 지난 1년 동안 길고 뒹은 숨쉬를 뽐내는 학술제가 동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각 건물 게시판마다 학술제의 일정을 알리는 포스터를, 학술제에 자신의 동아리·소모임·학회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밤샘작업도 마다 않고 행사 준비에 매달리는 학생들을 볼수록 가을의 축제 학술제가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다.

곽건호(사과대 신병3)

무조건적인 비판 그만 선거에 직접 참여하자

곧 있으면 다가올 38대 총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요즘 학내에서는 선거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4년 동안의 적지 않은 대학생활을 마감하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많은 경험들을 하였고, 그것은 곧 나에게 의미 있는 경험들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한 많은 경험들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일반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에서 선거에 참여해 보는 기회였다. 무척이나 유익했다. 여러 입후보자들의 선거공약을 읽어보고 그 정책 방향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후보가 있다면 거기에 투표를 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의 대표를 선출하는 데 자신의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얼마나 기본 좋은 권리인가. 하지만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의 학생들의 관심은 그것이 아닌 것 같다. 매년 나오는 투표율은 거의 바닥을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입후보자들은 당선되지 못한 상태로 어김없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다음해의 학교행사를 준비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봐 온 것이 사실이다. 총학생회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저 무관심으로,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하며, 직접적인 자기표현 방식인 투표권조차 포기한 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며 선거가 끝나고 대표가 선출되면 그때서야 무조건적인 학생회의 비판은 이제 그만 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 이번에 진행되는 38대 총학생회 선거는 내년 동국 100주년을 준비하는 우리의 대표를 뽑는 의미가 남다른 선거이다. 교정을 거닐면서 입후보자들이 내 놓은 공약을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우리 학생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조금의 관심을 기울여 이번에는 우리의 손으로 직접 우리를 대표를 뽑는 일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진혁(사범대 교육4)

평가를 위한 변화 아닌 학생위한 변화 되어야

'어! 평가 달라졌다!' 얼마 전 학교를 오르는 길에 땀이 흐르는 변화들이 생긴 것을 알아차렸다. 건물색이

바뀌고 명진관 입구에는 장애우를 위한 보도블럭이 설치되고 동국관에는 로비도 생겼다. 게다가 그날따라 그 많은 차들도 모습을 감추었다. 조금은 낯선 학교의 모습이었지만 땀이 모를 상쾌함과 편안함을 느꼈다. 몇몇 학과와 전공수업은 휴강이 되었다. 평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맴도는 학교였다. 알고 보니 대학평가단이 방문을 한다고 한다. 대학평가를 위해 많은 관계자분들과 교수님들이 노력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 학교 발전을 위해 애쓰는 모습들에 대해 많은 감동도 받았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변화일까'라는 생각을 하니 밀려오는 쓸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날은 학생들의 불만을 일으키던 차량 진입도 통제되고 학생들의 소중한 권리인 학습권이 경시되었다. 좋은 대학으로 평가받기 위해 행해지는 일들이 진정으로 대학의 발전을 꾀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겼다. 약간의 아쉬움을 갖게 하는 변화들이었다. 하지만 바람 한 점 불지 않던 학교에 잠시나마 봄바람이 불어왔다. 이를 계기로 이러한 움직임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인 것이 되길 기대해 본다. 또한 대학평가를 위한 변화가 아닌 학생을 위한 변화로 자리 잡길 기대해 본다. 누구를 위한 대학평가인가. 그 대상은 학생이 되어야 한다.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교, 그러한 학교에서 학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학생들이 배출되는 것이다. 박누리(문과대 중문3)

동국 히로아락



▲ 71년 6월에 실시된 72학년도 총학생회 선거 현수막과 벽보.



▲ 85년 3월 8일 도서관 앞에서 있었던 '학도호국단' 현판 화형식 장면.



▲ 불상앞에서 진행된 제18대 총학생회장 선거 유세장면.

⑥ 총학생회 부활

학도호국단은 1949년 9월 28일 대통령령 제186호로 공포된 '대한민국 학도호국단 규정'에 따라 발족한 학생자치단체이다. 학도호국단의 목적은 국가전시사태에 대비, 국가안보를 위한 체제확립에 있으나 그 운영상 편협적이고, 폐쇄적인 일면을 드러내고 있다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은 한층 고조됐다. 이에 지난 1985년 폐지되면서 총학생회 부활을 위한 움직임이 학교에서 일어났다. 지난 1985년 3월 7일 '학생회치연구 위원회'가 발족되어 첫 회의가 같은달 11일 한상범(법학)위원장장을 비롯한 13명의 위원과 장운(독문3)군 등 5명의 학생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학생처장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에 힘입어 1985년 3월 29일 총학생회 제17대 선거가 부활했으며 총학생회장은 지재봉(인철4), 부총학생회장은 강병용(농경4)군이 당선됐다. 이때 유권자는 9,928명 중 6,793명이 투표해 68.4%의 투표율을 보였다.

자료 발췌=동대신문 제902호

사설

학생회 건설을 바라며

제38대 총학생회(이하 총학) 선거가 22일 시작된다. 이번 총학선거는 경선으로 치러지며, 단과대 학생회 선거는 불교대·이과대·경영대 등 총 6개 단위에서 단선으로 진행된다. 2002년도 선거 이후 최대 규모다. 이번 선거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총학이 부재해 학교정책에 학생들의 자리는 없었다. 또 시기적으로는 이제 거론하기조차 새삼스러운 건축 100주년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 '동국'의 이복을 집중시키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회는 지난 70~80년대 대다수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 그렇지만 요즘 학생회는 학부제의 도입, 학생들의 개인주의, 변화되지 않은 학생회 모습 등으로 역할이 지지부진해진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신문이 지난 9월 29일에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그동안 총학생회 사업에 만족한다'는 학생이 15%밖에 되지 않는 점이 좋은 사례다. 이런 점에서 이번 선거 후보자들의 공약보다 선거성사 여부가 더 고민이다. 총학 후보는 경선인데다 6개 단과대 후보자가 있는 상황이지만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최근 5년간 투표율은 50%를 간신히 넘겨나 선거가 무산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선거참여에 심각한 수준이다. 후보자들은 선거유세에 앞서 학생들의 투표참여 유도에 더 큰 힘을 쏟아야 한다. 학생들의 참여가 없으면 학생회도 존재할 수 없다. 최근 인터넷 여론광장 '나의 주장'의 후보자 비하발언에 대해 경각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활발한 참여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오프라인에서도 선거분위기를 만들며 투표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해야 한다. 그것이 곧 학교와 학생을 발전으로 도약시키는 방법이다. 후보자를 포함한 학생들은 투표를 미달로 학생회가 서지 못하는 불상사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

동국만평

정명근 gmgje@hanmail.net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편집인 겸 주간 윤재웅, 부주장 김세균, 편집장 황주상
서울캠퍼스 (우)11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지나오 동대신문을 읽고

자부심과 긍지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기사 다뤄주길

최근 우리 학교는 언론을 통해 좋지 않은 이미지가 부각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 학교 이미지가 실려가는 좋은 취지였다. 하지만 여성 리더십이라는 부가항목에서 총학생회 선거 기간이라는 민감한 시기의 자긍심을 초라하게 만들게까지 할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그러므로 학교와 학생간의 신뢰를 최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교내 여론을 이용하여 실추된 학교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며 더불어 학생들의 자긍심을 불러 일으켜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동대신문에서는 1면부터 예산집행관련 등 이맛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기사로 시작하여 '동학협' 제도가 정착되어있지 않은 우리 학교의 시급성, 혼란 속에서 치러진 본교 이사로 등 각종 문제점만이 드러난 기사로 채워져 있었다. 그러나 자긍심을 키울 만한 기사였던 진동제어시스템장착 구조물관련 글은 소재목이 생략되어 독자로 하여금 이복을 끌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리더십을 주제로 한 주제기획에서는 발표수업과 취업에 입할 우리 학생들을 리더적 성향으로 이끌어주는 좋은 취지였다. 하지만 여성 리더십이라는 부가항목에서 총학생회 선거 기간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여성후보자로 출마한 후보자의 인터뷰를 실으면서 자칫 선거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버렸다. 아무리 좋은 취지에 의도한 바는 아니었을지라도 언론은 선거기간이었음을 직시하고 중립성을 유지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뒷면으로 갈수록 흔하고 유익한 칼럼들이 있어 신문의 완성도를 높였지만 신문은 뒷장부터 펼쳐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언론이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동대신문은 여론의 중심으로서 동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기 위해, 또 잃어버린 우리 학교의 신뢰성을 되찾기 위해 보다 앞장 서야 할 것이다. 예현주(사과대1)

보리소

기르고 가르치면서 보호하지 못한다쳐야...

가정과 학교와 사회는 각기 다른 이들이 살아가는 별개의 장(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각기 자신의 영역 밖으로 청소년들을 떠밀어 던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 부모는 일터로 향하면서 자녀를 학교로 떠밀어 던지고, 교사는 퇴근하면서 그들을 거리로 내보내고, 사회는 그들에게 온갖 쾌락(快樂)을 달라는 대로 팔아먹다가 밤이 되면 이제부터 자기 책임 아니라고 그들을 가정으로 떠민다. 어느 날 밤늦게 화장실에 들르신 부처님은 당신의 아들 라훌라가 화장실에서 쭈그린 채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사연인 즉, 나이 어린 라훌라가 잠을 자기 위해 여러 방을 찾아다니다가 잠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부처님 방 옆 화장실에 앉아 졸다가 잠이 든 것이다. 부처님은 비구들이 사미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계율 때문에 한 밤중에 라훌라가 내쫓긴 사실을 아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위로하였다. 그리고는 친히 그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 밤새도록 마주 앉아 있다가 날이 새자 그자들을 불러 앞으로 어린 사미가 잠자리를 얻을 때까지 3일 동안 한시적으로 비구들과 함께 잠을 잘 수 있도록 특별 조항을 마련하였다. "이 사미는 잠으로 가련해서 부모조차 없으니 만약 가엾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만약 짐승처럼 다룬다면 크게 상심하게 되니 친척과 이웃들이 분노하여 '부처님은 어린 제자를 기르거만 하지 보호하지는 못한다'고 비방하리라." -십송송- 만일 오늘날 우리들이 자식을 기르고 가르치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그들에게 던져진 실존(實存)과 현상(現象)에 주목하여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어린 라훌라들이 또 다시 화장실에서 어둠속에 쭈그린 채 잠들어버리지 않겠는가. 기르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깊이 새겨 붙여진 말입니다.

이 학주
동국대사대부속여고 교법사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ICOMOS) 집행위원회에 당선된 이해은 교수를 만나

“세계를 무대로 소중한 문화유산 보전 위해 힘쓸 것”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나아가 아시아의 문화가 국제무대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어요.”

지난달 21일 중국 서안에서 열린 제15차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ICOMOS) 총회에서 우리학교 지리교육과 이해은 교수가 집행위원으로 당선됐다.

학교와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문화 유적 보존과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는 이해은 교수를 만나 문화 유적에 대한 그녀의 생각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 국제적으로 ICOMOS는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인가.

= ICOMOS는 현재 세계 107개국의 문화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각국의 문화유산의 보존에 관여하고, 세계적 유산의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세계유산위원회에 추천하는 자문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관련 국제협약의 채택 및 건축유산 진흥 도모와 문화재 보존 정책에 관한 정보의 수집, 평가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중 특히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문화 유적을 수집하고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세계유산으로의 등재 권고, 보류, 반리를 결정해 세계유산위원회에 추천하는 세계적 문화유적 관련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점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겠다.

- 이번 당선과 관련한 소감은.
= 각국의 다른 후보들은 ICOMOS 집행위원회 선출되기 위해 장기간의 선거 운동 기간을 거치는 것에 비해, 예정 없이 출마하고 당선돼 한편으로 놀라기도 하고 어깨가 무겁기도 하다.

세계의 문화 현상의 핵심에 서게 된 만큼 세계적인 문화유산 등재 경향이나 정보 등을 잘 빠르게 알 수 있으며, 우리 나라를 넘어 아시아의 무대에서 이런 정보의 가치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경우 소중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들의 문화재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

- 그동안 다양한 문화재 관련 활동들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문화재와 문화유산은 무엇보다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존 과정을 통해 역사가 정립될 수 있으며 후손들에게도 가치 있는 문화를 남겨줄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 기증한 유물은 조선 후기 군무아문대신을 지낸 이규원과 관련한 것으로 이와 관련한 기획전을 열기도 했다.
이 밖에 각종 문화유산 관련 국제 학술회의에서 문화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으며 ICOMOS 한국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에 있다.

-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계 문화의 새



로운 부분들을 더욱 공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이 세계무대에서 문화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확고한 목소리를 내게 된 만큼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관련 활동에 충실히 생각이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인물동정

제8회 일백문화대상 학술상 사학과 임돈희교수 선정



지난달 10일 ‘제8회 일백문화대상’ 학술 부문에 우리학교 사학과 임돈희 교수가 선정됐다.

일백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과학기술상에 포함공대 황인환 교수, 사회체육상에 SBS윤세영 회장, 문화예술상에 최상용 한국예총 부산지부 회장이 선정됐으며, 우리학교 임돈희 교수는 학술 부문에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임돈희 교수가 탁월한 학문적 성취로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점을 공로로 인정받은 결과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교학과 권기종 교수 퇴임기념 특별강연회 22일



우리학교 불교학과 권기종 교수의 특별 강연회가 오는 22일 오후 4시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강연회는 권기종 교수의 퇴임을 기념해 마련된 것으로 ‘반야바라밀다’의 중요성과 그 실천’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학교 대학원장 서윤길 교수와 불교대학장 조윤길 교수의 기념사와 제자들의 화환 및 선물 증정 등의 기념식이 진행될 계획이다.

우리학교 한의과대 교수팀 항혈전, 항응고 단백질 발견

우리학교 한의과대 장규태, 김장현 교수팀이 사람의 태반에서 뇌와 심장 등의 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는 새로운 항혈전 및 항응고 단백질을 발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우리학교 한의과대 교수팀이 연구한 단백질은 PP27이다.

이번 발견을 통해 갑상선 이온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필수 지질과 결합해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새로운 기술의 비전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우리 신문 기획부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 상록원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리서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선배를 만나다

관심있는 분야를 ‘즐길’ 줄 알아야



GS홈쇼핑 상무 윤인모(농업경제 84졸) 동문.

우리가 굳이 구매 욕구를 느끼지 않을 때에도 홈쇼핑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공중파 채널 사이 사이에 홈쇼핑채널을 넣을 생각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학교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한 윤인모 동문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가 생각한 이

채널전략은 당시 LG홈쇼핑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에 큰 몫을 했으며 전반적인 홈쇼핑 사업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됐다.

“반죽이는 아이디어는 백지상태의 머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떠오를 수 있는 것이지요”라고 말하는 윤 동문. 그런 그의 좌우명 역시 항상 새로운 것을 찾자는 뜻의 ‘일일신 우일신(日日新 又日新)’이다.

대학시절 그에게 1년간의 교내방송국 아나운서 활동은 방송 매체에 대한 열정을 갖게 했다. 한 때는 아나운서의 꿈을 갖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교육학 석사과정과 10년간의 직장생활은 방송과는 별 관련 없이 흘러갔다.

하지만 93년 케이블 TV가 태동할 즈음, 홈쇼핑 업계에 입문하면서 방송에 대한 열정을 다시 찾게 됐다. 윤 동문은 ‘잠들어 있던 방송에 대한 욕구를 나 자신이 잊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좋아하던 방송 관련 일이라는 점에 큰 기쁨을 느낀다고

한다. 초기에는 바쁜 일정 속에 일주일에 하루 정도 밖에 집에 갈 수가 없던 때도 있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뛰어나고 노력하는 만큼 내 회사에 큰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피곤함까지 즐겨워요”라는 말에서, 그가 진정으로 자신의 일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인모 동문은 “사회에서는 홈쇼핑이라고 하는 것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종종구매를 유도하는 매체라는 편견을 갖고 있기도 한데, 이 점이 가장 안타까워요”라며 “이에 다양한 상품, 질 높은 상품 등을 많이 선별해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홈쇼핑이 되게 하려고 끊임 없이 노력할 겁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후배들에게 “대학 시절에는 그저 공부에 매여 있기보다는 즐겨라”라고 조언한다. 이 때 즐긴다는 것은 흥청망청 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 그 분야에 대해 깊고 넓게 ‘탐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집중하고 즐기는 것 자체가 미래에 대한 준비라는 윤인모 동문.

그런 윤 동문에게서 진정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임하는 진짜 ‘프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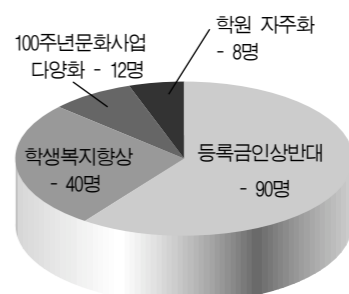
<한>

nitake@dongguk.edu

리서치

목요일 1시 상록원에서는 ...

“새로운 총학생회에 바란다”



총학생회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두 팀의 후보들이 출마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선출될 총학생회장은 건학 100주년을 짊어지고 나갈 대표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우리 신문은 지난 9일 상록원에서 ‘새로운 총학생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15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티커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의 복지 향상’에 대한 학생은 전체의 26.6%에 해당하는 40명으로 나타났으며, ‘건학 100주년 문화사업의 다양화’는 12명(8%), ‘학원 자주화’는 8명(5.3%)이 응답했다.

이에 학생들은 현재 새롭게 건설될 총학생회에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등록금과 관련한 활동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기탁 의견 -

△우리학교 학림관이 너무 낙후돼 있어요. 학림관 리모델링에 힘써주세요.

△이번에 당선될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복지 향상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2006학년도 전과(전공변경) 공고

- 1. 지원자격
- 2학년과정을 수료하고 총 성적의 평점평균이(F성적을 포함) 2.5 이상인 진급예정자
- 단, 국제학점공 재학생중 일반계열 학과로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 (전과후 정규 진여학기 기간내 졸업 가능자)은 전원 신청 가능함
2. 전공변경 대상전공(학과) : 원칙상 계열제한 없이 전 전공(학과)
3. 제한사항
가. 경찰행정학과로의 전공(학과) 변경
나. 캠퍼스간 전공(학과) 변경
다. 야간에서 주간 및 주간에서 야간으로의 전공(학과) 변경
라. 편입생 및 입학시 체육특기자 전형 및 전공(학과)변경 제한 조건으로 입학한 자
마. 예체능계 지원시 실기시험 부과
4. 전공(학과)변경 허용인원
전입 전공(학과) 2004학년도 입학정원의 50%(사범계열 20%)
5. 시행 일정
가. 원서접수
(1) 접수처 : 전입희망 전공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야간은 야간강좌 교학처)
단, 국제학점공 재학생의 (특별)전과신청원은 학사지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람.
(2) 접수기간
① 재학생인 3학년 진급예정자 : 2005. 11. 14(월) ~ 16(수)
② 2006학년도 1학기 3학년 복학예정자 : 2005. 12. 5(월) ~ 7(수)
(3) 구비서류 : ① 전공(학과)변경원 ② 자기소개서 및 학업이수계획서
나. 면접 및 실기고사 : 2005. 12. 19(월) ~ 24(토), 전공(학과)별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다. 전공(학과)별 합격자 결정 : 2006. 1. 25(수) 이전(예정)
라. 전공(학과)변경 합격자 공고 : 2006. 1. 31(화) 이전(예정)
6.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가. 일반계열 : 1. 2학년 누계성적평점(100%) + 면접
나. 예능계열 : 1. 2학년 누계성적평점(70%) + 실기고사(30%) + 면접
다. 사범계열(체육교육제외) : 1. 2학년 누계성적평점(90%) + 교직 인 · 적성검사(5%) + 면접(5%)
라. 체육교육과 : 1. 2학년 누계성적평점(80%) + 실기고사(30%) + 교직인 · 적성검사(5%) + 면접(5%)
마. 국제학점공 재학생중 일반계열로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무시험 전형으로 전과시험
7. 기타 세부사항은 소속대학 행정지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 무 처

2006-1 학기 우수장학금 신청안내

- 1. 장 학 명 (장학금액) : 우수장학 (등록금 30%)
가. 단과대수석장학 및 전공(학과)수석장학은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성적순에 따라 선발함.
나. 신규 교외장학제도 우수장학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중에서 우선 선발함.
다. 보충자녀 등 계속장학생은 신청할 필요 없음.
2.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재학생으로 우수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
가. 2005-2학기 취득학점이 17학점(졸업학점이 120인 경우는 15학점),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취득학점 미달 및 평균평점이 3.0미만인 경우 추후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나. 교내,외의 타 장학금을 받는 자 제외
다. 2006-1학기 복학예정자 제외
3. 신청기간 : 2005. 11. 15(화) ~ 30(수)
4. 신청장소 : 해당 학업지도교수
5. 신청방법 : 장학금신청서(소정양식)를 작성하여 제출
6. 신청서 평가기준 : 아래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
가. 학업성적 : 60점
나. 사회봉사 : 10점
다. 가정형편 : 20점
라. 학업지도교수평가(학과특성 및 기여도) : 20점
※ 항목별 세부기준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해당대학 교학처에 문의바람
7. 제출서류
가. 장학금신청서(http://www.dongguk.edu에서 다운받아서 사용)
나. 사회봉사인증서
1) 교외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은 봉사기관에서 작성한 봉사활동 증명서류를 해당대학 교학처에 제출함.
2) 동국참사랑봉사단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은 자동 접수 처리됨.
3) 사회봉사경력은 졸업 시 까지 계속 인정됨.
다. 지방세 세목별(미)과세증명서 : 부모 각각의 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라. 기타 가정형편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마. 학업성적은 자동으로 접수 처리됨
※ 장학금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우수장학금을 수혜 할 수 없음.

학 생 처

일본학연구소 제37회 국제 학술 심포지엄
韓 · 日間の 歴史問題,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 그 解法과 克服 -

일시 2005년 11월 18일 금요일 오후 1:00 ~ 5:00
장소 동국대학교 다량관 세미나실

Table with 2 columns: Session Title and Speaker. Sessions include '개회식', '개회인사', '주사', '기조연설', '논문 발표', '일본 근·현대사에 관한 韓國人の 歴史認識', '日本 歴史敎科書의 問題點과 克服方案', '日本 古史代 問題點의 새로운 認識 - 平壤神의 文獻의 考察을 中心으로 -', '폐회식'.

일본학연구소

2006학년도 1학기 캠퍼스간 학점교류 안내

- 1. 교류기간 : 2006학년도 1학기
2. 신청자격 및 선발
가. 신청자격 : 3학기 이상 마친자로서, 학기당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총 성적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
나. 선발 : 누계평점평균(계절학기 포함)순으로 학과(전공)별 입학정원의 10%이내에서 허가
다. 캠퍼스간 학점교류자가 휴학을 한 경우 허가 취소
3. 제한사항
가. 강의실 수업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학과(전공)별 선발인원을 제한
나. 캠퍼스간 동일 및 유사전공이 없는 경우 교류인원 제한
4. 신청기간 : 2005. 11. 21(월) - 11. 23(수)
5. 신청서 제출 : 캠퍼스간 학점교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업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소속대학 교학처에 제출

교 무 처

약소국 문화 발전에 힘심는 '문화다양성협약'

다음 해 2월 국회비준 통과 위해 노력해야

과연 지구상에 어느 특정 문화만이 존재할 수 있을까. 언어도, 피부색도, 성격도, 생활환경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 넓은 지역에 걸쳐 존재하는 이상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자유무역'을 필두로 한 세계화는 경제 분야를 넘어 문화 분야에서도 강대국 문화로의 획일화를 부추기고 있다. 서구 대자본에 밀린 약소국의 문화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문화다양성 협약)'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총회를 통과해 문화계가 반기고 있다.

세계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문화다양성 협약은 지난달 20일 열린 제33회 총회 표결에서 찬성 148, 반대 2(미국, 이스라엘), 기권 4의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된 것이다.

협약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소수자의 문화 표현의 권리 △언어를 비롯한 포괄적 의미에서의 문화 다양성 보장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각국의 문화정책 수립 권리를 국제법으로 보장함에 따라 문화의 획일주의를 저지하고 각 국가가 자국 문화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일반상품과 구별되는 문화상품과 문화서비스의 특수한 성격을 인정받아 각종 다자간·양국

간 통상협정에서 문화상품을 예외로 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얻게 됐다. 이와 관련해 민족예술인총연합(이하 민예총) 정책기획팀 안태호 간사는 "협약의 통과는 미국주도의 세계화가 가져온 부작용을 반증해주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스크린쿼터 등의 활동이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국제적 상항으로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협약이 국제법으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최소 30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한다. 더욱이 비준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만큼 우리나라의 국회비준 통과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 9일 국회에서는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4당 의원과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세문연), 스크린쿼터지킴이 영화인 대책위(이하 영화인 대책위)가 참여한 가운데 '문화다양성 협약 국회비준 통과'를 결의하는 간담회 및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날 행사에서 이들은 모두 문화다양성 협약의 국회비준 필요성에 대해 강력하게 언급하며, 2006년 2월 협약의 국회비준 실현을 촉구하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대한민국 국회가 문화다양성의 자존심을 살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문화다양성 협약의 의의와 나아가 국회 비준과 올바른 실행을 위한 △공공 문화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및 법규와 제도 정비에 관한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안태호 간사는 이번 간담회 및 기자회견과 관련해 "문화계와 각 정당의 의원이 함께 공동성명을 낸 자리인 만큼 국회안에서도 협약의 국회비준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통상압력을 우려해 협약에 찬성해놓고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우리나라 정부의 태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또한 추진기관이 외교통상부라 문화부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있다.

이에 민예총, 영화인 대책위 등 문화예술분야 29개 단체로 구성된 세문연은 국회비준을 위한 기자회견 등의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한 미국의 대외적인 무역정책이 지나치게 자국의 이익에만 부합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계속 문제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기보다 자본의 논리만 앞세운 '무지한 힘'에 대응해, 정부차원의 확고한 의지와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② 전통도자 만드는 하태훈 군

"자연에서 빚어내는 '진짜' 도예 하고 싶어요"



우리 전통도자는 흙과 불이 만들어내는 우연성에 그 신비함이 있다. 그 우연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장인의 손이다. 기계로 대량생산하는 전통도자가 주를 이루는 요즘, 그러한 장인의 손은 점점 귀해지지만 한다. 이런 세태 속에서도 전통 도자의 '장인'을 꿈꾸는 젊은이가 있다. 경희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하태훈(도예학 석사과정) 군이 바로 그이다. 그에게서 전통도예의 아름다움과 어려운 점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도예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 고향이 경주인데 어릴 적 집 주위에 도예공방이 많아 호기심을 갖게 됐다. 처음엔 멋모르고 시작한 길이었지만 작품을 만들 수록 이 분야에 더 끌린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흙의 감촉과 도자의 은은한 운치가 좋다.

연재기획 - 우리 문화를 찾는 젊은이들

우리 전통문화 각 분야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만나본다

편집자

-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 현실적으로 원하는 작품을 할 여건이 안 될 때 힘들다. 한 예로, 지금 '결정유'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는 유약을 이용해 도자기에 꽃이 피는 듯한 효과를 내는 것이다. 무늬가 예뻐서 일반인들이 보면 많이 좋아한다. 그러나 다루기가 매우 힘들어 직접 손으로 제작한 작품은 매우 비싸다. 때문에 기계제작 도자에 친숙한 일반인들이 구입하기에 부담스러워 한다.

-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 졸업 후 공방을 운영할 생각이다. 작품 활동과 더불어 학생들을 지도하고 싶다. 나중에는 고향의 산에 들어가 흙도 직접 캐고 걸러 건조시키고, 전기 물레가 아닌 발로 직접 밟는 물레를 써 '진짜' 전통 도예를 하려고 한다. 자연주의적 삶을 사는 진짜 장인이 되고 싶다.

- 전통도예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에 아쉬운 점은.
= 우선 도자 자체에 익숙지 않은 것이 문제다. 일본의 경우 일반식당에서 쓰는 그릇들도 거의 도자인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플라스틱을 이용한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전통도자에 인색하다. 전통도자에는 우리 선조들이 남긴 고즈넉한 아름다움이 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 전통도자를 많이 접할 수 있게 해, 우리문화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
niitake@dongguk.edu

내가 좋아하는 문화예술인

감옥으로부터 깨달은 '더불어' 삶을 실천하는 사람



신영복 교수



김동주
정치학 석사과정

신영복 교수는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과 연루되어 무기징역을 언도받았다. 그는 대전, 전주 교도소에서 20년간 복역하다가 1988년 8·15 특별감형으로 출소하였고 지금은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중·고등학생 추천도서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그가 감옥에서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엽서)를 모아 출판한 책이다. 그 내용은 짤막짤막 전개되지만 그가 감옥에서 느끼고 생각한 '인간'과 '이웃'에 대한 새롭고도 깊은 통찰을 엿볼 수 있다.

나에게는 2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절망적인 공간에서 자신의 영혼을 가다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난다.

아마도 내가 신영복교수의 저서를 읽으면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사람은 이웃과 함께 살아가다'는 그의 생각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그는 책에서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그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감옥에서 한 방을 쓰는 동료들과 몇 년씩 하루 24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다보면 그 사람의 역사, 가족, 처지 등을 총체적으로 접하며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는 감옥에 들어오기 전 머릿속에 책을 가지고 구성했던 사회론이 아닌, 가장 소외된 밑바닥 인생을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을 통해, 사회에 숨겨진 모순구조를 통해 사회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음을 소중한 기회로 받아들였다. 빨치산, 북한 안내원, 북한 정치공작원, 그리고 광복 전후 격동기를 살았던 노인들을 만났고 그들의 삶을 통해 역사를 다시 '읽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진정한 지성인이란 어떤 것일까?"라는 질문을 그는 '실천'으로 이야기 한다. 한 사람이 사회의 기본적 모순의 한복판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가장 '정직한 나무'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신영복교수가 교장으로 있는 '더불어 숲' 학교의 활동은 그가 실천하는 지성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다.

신영복교수의 삶에 비추어 생각할 때, 한 사회의 지성인으로서 올바른 자신의 역할을 찾기 위해 대학에서 배움을 행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올바른 현실파를 밟고 있는지, 얼마나 올바르게 실천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끔 한다.

서에게로도 유명한 신영복교수가 자신의 인생을 써놓은 듯한 '더불어 한길'이라는 문구를 생각해 보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 싶다.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가르친다는 것은 다만 희망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메아리

올라이트(All Right)!!

▲소설 '태백산맥'의 주요 인물인 염상진과 염상구. 이들은 형제이면서 서로 총부리를 겨룬다. 형은 좌익지 역구의 대장으로, 동생은 반공주의를 외치며 '빨갱이' 들을 숙청하는 전형적인 우익 청년단장으로 말이다. 왼쪽과 오른쪽의 양 끝에서 있는 이들 형제의 모습은 이념의 벽을 넘지 못한 해방 직 후 우리민족의 '어둠'을 대변한다.

▲지금 우리 정치권은 이 양끝에 선 채 '누구 하나 자기 편으로 데려갈 사람 없다' 골몰하는 모습이다. 자신과 반대되고, 약간의 트집만 있다면 색깔론으로 몰고 가기 일쑤다. 우리 민족에 내재돼있는 '어둠'을 자극해 어떻게든 '한 표' 더 얻으려는 정치권의 속셈은 아쉽지만 한다.

▲지난 7일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출범하면서, '뉴라이트(New Right·신보수)' 진영이 갈라졌다. 갈라진 원인을 요약하면 한국사회의 '기득권'인 '올드라이트(Old Right·구보수)'에 대한 관점차이 때문이다. 지난 달 19일 출범한 뉴라이트 네트워크는 정치적으로 한나라당을 필두로 한 올드라이트 세력을 극복해야만 신보

수가 21세기 한국사회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올드라이트를 끌어안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둘을 모두 끌어안기'로 결정할 듯 하다. 두 단체의 출범식에 모두 참여한 것이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이 뉴라이트 세력을 잠재적 제휴 파트너로 상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실 뉴라이트 진영은 정치권과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것에 거리를 둔다. 더욱이 '문화전통을 자유주의와 접합시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동체의 따뜻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말한다. 이대로만 활동한다면 공허한 이념대결이나 색깔론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하지만 출범 첫 머리부터 '좌편향 정권의 재집권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주장하는 모습은 이들이 과연 '합리적인 보수'로 거듭날지 의심케 한다.

최민희 문화부장
mh705@dongguk.edu



일러스트=(현)

문화단신..... ② 글로벌 투어 영화제 '레스페스트'

서울국제노동영화제 개최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제9회 서울국제노동영화제'가 개최된다. 노동자뉴스제작단 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영화제는 국내작품 11편, 해외작품 12편으로 9개국의 작품이 상영될 예정이다.

'노동영화, 자본에 경고하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영화제는 현재의 노동 시스템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드러내고, 노동자들은 이에 어떻게 파괴당하고 있으며, 어떻게 투쟁해야하는지를 담았다.

해외작품에서는 세계화된 자본주의로 인해 노동자의 고통과 투쟁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작품들이 선보이며, 국내작품은 교대제·문화·산별문제·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등을 이야기한다.

철레 현대미술전 열려

국립현대미술관과 철레 산티아고 현대미술관의 공동주최로 마련된 '철레현대미술전, 다른 세계로부터'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다음달 1월 30일까지 열린다.

평소 유럽과 미국, 일본이나 중국의 미술이 많이 소개된 것과는 달리 남미 작품이 선보인 것이라 더욱 뜻 깊은 이번 전시회는 작가 55명의 작품 70여점이 전시된다. 전시회는 철레의 중견작가와 신진작가의 작품으로 나뉘어 있어 철레 미술의 현재와 과거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이번 전시회에 이어 2007년에는 산티아고 현대미술관에서 한국현대미술전이 열릴 예정이어서 미술전시를 통한 양국간 상호 문화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성과 혁신의 즐거운 공존

개성을 중요시하는 요즘 젊은이들은 기존 문화를 따라가길 거부하고 자기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창조하는데 몰두한다. 이러한 그들의 문화활동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적극 반영하고 장르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젊은이들의 모습을 반영하는 영화제가 있다. 바로 남산 드라마센터에서 열리는 제6회 '레스페스트'가 그것이다.

90년대 중반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등장으로 새로운 형태의 영화를 제작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아이디어에서 만들어진 이 영화제는 미국에서부터 시작해 전 세계 40개국에 달하는 도시를 순회하는 글로벌 투어 영화제이다. 영상·음악·문화 아이콘·디자인·아트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호기심 비상! KEEP IT CURIOUS'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영화제는 지난해와 달리 객석을 반 이상 줄이는 대신 행사 기간을 두 배로 늘렸다. 레스페스트 홍보팀 손호정 씨는 "작년에 비해 작품이 다양해지고 장소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개막식은 혁신성에 기준을 두고 선정한 '레스10'의 국내 젊은 작가의 퍼포먼스로 시작했다. 프리랜서 그래픽 아티스트인 '파핑크'와 DJ 겸 프로듀서로 활동하는 'DJ소울스케이프'가 함께, 일렉트로니카와 힙합이 분리되기 전 음악적 호기심을 개성 있는 영상과 음악으로 풀어냈다. 또한 뮤지션이자 공연·앨범디자이너·인터

넷·뮤직비디오 등 폭넓은 영역에서 활동하는 '백'의 뮤직비디오 17편이 상영됐다. 이를 관람한 박상준 씨는 "지난해에 비해 작품과 프로그램이 다채로워져 발전해가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금 늦게 시작된 개막식, 관람객의 늦은 입장, 상영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소수의 관람객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또한 레스페스트 관계자는 "진짜 영화관이 아니기 때문에 좌석의 불편함이나 스크린의 제약은 아쉬운 점이다"라고 말해 앞으로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영화제는 △글로벌 단편 △뮤직비디오 프로그램 △컬처&라이프 △아티스트 특별전 △국내 단편 프로그램 △특별 초청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기존 대중문화의 몰개성에 식상함을 느끼는 젊은이라면 신선하고 독특한 작품의 축제인 '레스페스트'를 찾아가 자신의 문화영역을 넓히는 것은 어떨까. <O>

lee123@dongguk.edu



제대로 알고 하자 - 우프, Work&Travel



다른 문화 적극 수용하는 열린마음 준비해야

해마다 많은 대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 해외 경험을 쌓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특히 영어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어학연수를 가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어학연수를 고려하다 보면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우프(WWOOF)'와 'Work&Travel'은 다소 저렴한 비용으로 언어도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해외체험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을 제대로 알고 하지 못하면 원하는 만큼 얻어서 돌아오지 못하거나, 활동 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다반사다. 그렇다면 우프와 Work&Travel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 우프(WWOOF)

'Willing Workers On Organic Farms'의 약자인 우프는 '유기농 농장에서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농가에 들어가 하루 평균 4-5시간 노동의 대가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받는 식의 'famstay'이다.

1971년 영국의 한 농장에서 외국인 여행자들에게 일손을 빌린 것이 시작이 돼, 현재는 호주·뉴질랜드·캐나다·오스트리아 등 세계 60여개국에 우프회원국으로 돼있다.

우프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해당국의 우프협회에서 발간하는 책자를 구입하면 자동적으로 가입된다. 책 표지에는 각기 다른 고유번호가 부여됨에 따라, 책자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1년동안 우프, 즉 '우프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

현재 우리나라도 우프회원국으로 가입돼있다. 때문에 법인기관인 '우프코리아'가 우프를 해당국에 연결해주는 활동을 한다. 우프코리아의 김혜란 실장은 "최근 겨울방학을 앞두고 우프를 떠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프의 80%정도가 호주로 간다"고 말했다.

우프의 매력은 국가마다 특징이 다르므로 자신이 적합한 문화를 가진 국가를 선택하는 데에 있다. 때문에 우프를 준비하기 전에 각 국가별로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프의 어려운 점은 일단 문화에 적응하는 것과 농사일을 병행한다는 점이다. 영국에서 3개월간 우프를 체험한 한이화(정외4)양은 "낮선 가정이나 공동체에 들어가 생활하는 것이라 쉽지만은 않다"며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고 웃으며 할 수 있는 열린마음"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프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우프들은 일종의 '문화대사'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를 알리고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가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 Work&Travel

Work&Travel 프로그램은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1970년부터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매년 여름(6월 중·하순-8월 말)과 겨울(12월 중·하순-2월 말 또는 3월 초)에 세계 각국의 대학생들이 미국 내 호텔·리조트·국립공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미국 문화를 체험하고, 세계각지의 사람들과 교류할 뿐만 아니라 단기간 여행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겨울 방학동안 캘리포니아의 한 레스토랑에서 Work&Travel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돌아온 손혜진(정외3)양은 "두 달 동안 머물면서 함께 일한 사람



들과 많은 정이 들었고, 그들의 문화도 체험할 수 있었다"며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는 밝은 성격과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가 희망자는 미국 정부에서 인증하는 스폰서기관을 통해 문화교류 비자(J-1 Visa)를 발급받게 되며, 최대 4개월까지 참여할 수 있다. 또한 4개월 프로그램 종료 후 1개월까지 여행도 가능하다.

지원은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만 가능하며(휴학생 불가), 급여는 보통 시간당 \$6-9 정도이고, 하루 7-8시간씩 주5일 근무하게 된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일러스트=〈현〉

취업성공기

철저한 면접 준비로 자신감 보일 것

남정현
2005년 제일기획 입사
광고 05졸



취업 뒤에 성공이라는 단어는 역시 부담스럽다. 그래서인지 이 거창한 수식인 '성공'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눈에 밟힌다. 특히나 후배기자님에게 칭탁을 받은 기사지만 여간 망설여지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워낙 글 솜씨도 없을뿐더러 수많은 후배들에게 일찍이 만큼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도 만약 이 글을 읽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후배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히 감사할 것이다.

사투가 길었다. 사회생활 10개월째, 가끔 후배들이 묻곤 한다. "형, 취업 하려면 뭘 준비해야 해요? 영어? 학점? 인턴?" "글쎄..." 난 자주 말끝을 흐리곤 한다.

실제로 나도 학생 때 자주 묻던 질문들이다. 웃으며 대답한다. "2%의 노력과 98%의 운"이라고. 그 2%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나 역시 소위 세간에서 일컫는 최고의 광고대행사에 입사했지만 98%는 운이라고 생각한다. 붙은 사람과 떨어진 사람의 차이는 결국 종이 한 장의 차이이다. 나머지 2% 중 1%가 학점, 영어 등의 기본적인 회사의 요구사항이라면, 1%는 면접이다.

실제로 나는 면접에서 성공한 케이스다. 간신히 기본요건을 맞춰 서류를 합격했고 면접까지 갔으니 말이다.

가끔 나는 후배들에게 철저히 면접을 준비하라고 한다. 면접관, 회사, 직무 등에 관련된 예상 질문 등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야 한다.

작년 겨울 면접 통보를 받자마자 나는 도서관과 인터넷으로 뛰어 들어갔다. 도서관에서는 회사자료와 사보 1년치를 전부 살펴보고 인터넷에서는 면접관들로 나오는 회사 간부들의 글을 하나하나씩 다 찾아 읽었다. 또한 교수님들을 찾아가 면접 예상 질문을 뽑고 그에 대한 대처를 확실히 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면접 당일 날, 30분 동안의 면접에서 나는 전혀 기죽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다. 내가 고른 예상질문은 없었지만 탄탄한 준비로 마음이 가벼워져서인지 생각 외로 면접을 잘 볼 수 있었다.

도서관에서 토의를 하고, 학점을 올리고, 사회경험을 쌓고, 제2외국어를 공부하고, 자격증까지 갖추는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이뤄내고 마지막에서 실패하면 너무 아깝지 않은가? 누군가 야구는 '9회말 투아웃'부터라고 했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으려면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면접에 준비하는 후배들이 됐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내가 신입 사원대 선배 카피라이터가 말해준 말이 있다.

"첫인상이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고, 기죽지 말고 자신감 있는 인상을 보여주길 바란다.

정리=문화부
출처=네이버, 엠피스

따면 좋을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컴퓨터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을 양성할 목적으로 제정된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은 하드웨어뿐 아니라 정교한 소프트웨어까지 다루는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 시스템 분석 △전산업무의 타당성 검토 △정보시스템 분석 △시스템 설계 등 정보처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능력을 토대로 △기업체 전산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정보통신업체

△시스템 구축회사 △연구기관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더욱이 요즘에는 취업이나 승진시 가산점이 부여돼 더욱 주목받고 있다.

시험은 필기과목으로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산기구조 △운영체제 △소프트웨어공학 △데이터 통신이, 실기과목으로 정보처리 실무가 치러진다.

1년에 3번 정기적으로 시험이 시행되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관장하고 있다.

우리말 바로 알기

'뒤치닥거리'와 '뒤치다꺼리'

"내가 어چه 솔자리 뒤치닥거리를 다했어!" 여기서 '뒤치닥거리'는 '뒤치다꺼리'로 써야 바른 말이다. 우리말은 발음할 때 된소리로 나지만 표기는 예사소리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경우는 발음나는 대로 표기해야 한다.

한편 북한에서는 '뒤치다꺼리'를 문화어로 사용하고 있다. 조선말대사전에 올라온 예문을 보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우리말에서는 이것이 틀린 표기이다.

'내음'과 '냄새'

'어딘가에서 꽃냄새가 난다'보다 '어딘가에서 꽃내음이 난다'가 더 향기롭고 정감있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내음' 또는 '내음새'는 '냄새'의 방언이다.

때문에 '내음'은 '냄새' 또는 '향기'로 바꿔 사용하는 것이 바르다. 한편 '군내' '지린내' '술내' 등 '-내'는 '냄새'가 줄어든 형태이다.

출처=우리말 배움터

통합검색

2주간 인기검색어

검색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이 광복 60주년에 맞춰 지난 달 28일 용산에 개관했다. 첫 날 1만 9천여 명의 관람객이 몰린 국립중앙박물관은 40여 개 전시관으로 이뤄지고 국보급만 140여 점의 유물이 전시돼 세계 6대 규모의 박물관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이전 국립중앙박물관은 남산과 덕수궁 석조전을 거쳐 옛 조선총독부 건물에 자리를 잡았지만, 지난 96년 일제 잔재 청산운동으로 건물이 헐렸다.

APEC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2005 KOREA가 오는 19일까지 8일간 부산에서 열릴 관심을 모았다. 21개 APEC회원국 정상·정부대표 등 60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에는 △DDA(도하개발어젠다) 지원 △경제기술협력 강화 및 격차해소 방안 △안전하고 투명한 아·태지역 건설 등을 논의한다.

한편 이번 APEC의 개최로, 2006 대입수능능력 시험은 예년보다 한 주 미뤄지게 됐다.

해리포터

지난 7월 미국, 영국 등에서 발간돼 전 세계 출판계를 뒤흔든 해리포터 시리즈 6편 '해리포터와 혼혈왕자'가 지난달 28일, 총 4권 중 1·2권이 국

내에서 번역 출간됐다. 이에 17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를 달리던 '모모'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등 인기를 누렸다.

특히 이번 6편에서는 주요 등장인물 중 한 명이 죽는다는 예고에 팬들의 관심을 모았다. 3·4권은 각각 오는 15일과 다음달 1일에 출간될 예정이다.

이상미

대학생 5인조 록밴드 Ex(익스)의 보컬 이상미가 인기검색어 명단에 올랐다.

지난 달 15일에 열린 MBC 대학가요제에서 '잘 부탁드립니다'로 대상을 받은 이상미 양은 잠깐의 외모와 무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인기를 더했다. 현재 경북대 문헌정보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그녀는 팬카페 회원수와 미니홈피 방문객이 꾸준히 늘어나는 등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대현

지난 3월 전동차가 들어오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5세 아이를 구해낸 김대현(18) 군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김 군은 사고 당시 열차가 들어온다는 소리가 들리자 빨리 구하지 않으면 위험하겠다는 생각으로 선로에 뛰어 들었다고 한다. 김 군의 용기 있는 행동에 서울시는 김 군에게 용감한 시민상을 표창했다.

어학서적 특별 할인 행사

우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는 어학서적 특별 할인 행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행사기간 : 2005. 11. 7(월) - 11. 30(수)
2. 행사장소 : 다량관 구내서점
3. 문의전화 : 02-2260-8956

1) 디락원

교재	정가	할인가
토익900보개기	13,900원	6,950
토익900 (L/C)보개기	14,900원	7,450
토익900보개기(문법, 어휘편)	10,000원	5,000
변무현의 SOLUTION FOR THE TOEIC	17,000원	8,500
토익900보개기 PART5.6 실전연습	18,000원	토익록픽이주마(5.6)
토익900보개기 L/C 실전연습1200제	21,500원	토익록픽이주마(2.3)

2) YBM시사

교재	정가	할인가
이준봉R/C	16,000원	8,000원
토익탈출 107	13,000원	6,500원
SUPER CAT 1.2 A-SET	20,000원	10,000원
SUPER CAT 3.4 A-SET	20,000원	10,000원
SUPER CAT 5.6	13,000원	6,500원
SUPER CAT 7	13,000원	6,500원
2+200	22,000원	11,000원
안박사 토익 플러스	23,000원	11,500원
토익 만점 확보공개	20,000원	10,000원
만점예감 TOEIC GRAMMAR	15,000원	7,500원
30일 완성 토익 문법북기	15,000원	7,500원
30일 완성 토익 독해북기	15,000원	7,500원
660 PRACTICE TOEIC	13,000원	6,500원
POWER TOEIC 기초정취 set	22,000원	11,000원
토익 이대로 나온다 L/C	19,000원	9,500원
토익 이대로 나온다 R/C	15,000원	7,500원
터미네이터 베이직 L/C	16,000원	8,000원
터미네이터 베이직R/C	17,000원	8,500원
토익 VOCA 씹쓸이	16,000원	8,000원
토익 기출표현 1600	12,000원	6,000원
토익핵심을 필러라	12,000원	6,000원

동국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동국대학교 VISION 선편식

동국의 울림

일시 2006년 11월 23일 (수요일) 18:30~21:30

장소 서울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 홀

- 구성
- 18:30 ~ 19:00 등록 및 리셉션
 - 19:00 ~ 19:40 VISION 선편식
 - 사회 : 이재용(mbc아나운서) / 김소연(탤런트)
 - 19:40 ~ 21:30 만점 및 축하 공연
 - 사회 : 이경규(개그맨) / 이경실(개그맨)
 - 초청공연 : 일렉트릭, 송대관, 최진희

사이코 드라마

"내 안의 숨은 나"를 찾아가는 심리극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일시 : 11월 24일 목요일 2시-4시
 장소 : 집단상담실 (분관 2층 학생상담센터)
 참여인원 : 선착순 20명
 대상 : 사이코 드라마에 관심 있는 모든 동국대학교 학생
 리더 : 최윤미 (강원대 학생상담센터 센터장)

학생 상담 센터

수요일,

동국은 음악에 젖는다...

2005학년도 2학기

동국사랑 수요일음악회

11월 16일(수) 12:00 중앙도서관

아프리카 타악기 연주

출연진

곽연진(포커서니스트, 드러머)
이정호(아프리카타악기 연주단원)
동국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OPUS

통통

김지현(경명3)

타악

김남윤(가정교과2)

바이올린

김혜선(멀티미디어2), 김민재(전기공1)

첼로

홍윤기(전기공2)

연주곡

시칠리아노

Canon

Olatunji Opening

Kassa

Aconoon

Jondon & Willosodon

Kuku & Jauli

주최 : 중앙도서관, 교육방송국, 동대신문사, 학생복지실

동국 각류적 동영상 시사회

DGU Power Live

학내 구성원들과 락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상영하는 "라이브 공연실황"을매주 화요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및 12월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즐겁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장소 : 중앙도서관 AV실

- 11월 15일(화) 오후 6시 : Woodstock '69
- 11월 22일(화) 오후 6시 : 'Guns'n roses' Tokyo live
- 11월 29일(화) 오후 6시 : 'Rush' Rock in Rio
- 12월 6일(화) 오후 6시 : 'Nirvana' Live & Loud
- 12월 13일(화) 오후 6시 : 'U2' Elevation 2001

패이러티션 정기공연 : 11월 21일(월) 오후 6시 : 학림관 소강당

주최 : 동국락메스티발 조직위원회
주관 : 락동아리 피아리서던